



뉴스읽기
뉴스읽기
우수사례집



CONTENTS

제 3회<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소개	참여자 통계	8
	주제별 통계	9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10
	사진으로 보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19
	제 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20
수상자 인터뷰 & 대표작 모음	이사장상 인터뷰	26
	수상 대표작 모음	28
개인	어린이 저학년 부문 인터뷰	30
	어린이 저학년 부문 수상작	34
	어린이 고학년 부문 인터뷰	36
	어린이 고학년 부문 수상작	42
	청소년 부문 인터뷰	44
	청소년 부문 수상작	46
	성인 부문 인터뷰	48
	성인 부문 수상작	50
단체	어린이 저학년 부문 인터뷰	52
	어린이 저학년 부문 수상작	54
	어린이 고학년 부문 인터뷰	56
	어린이 고학년 부문 수상작	58
	청소년 부문 인터뷰	60
	청소년 부문 수상작	62
	성인 부문 인터뷰	64
	성인 부문 수상작	66
우수지도자		68
특별상		70
공모전 본상·특별상 수상 명단		78

대국민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 뉴스읽기 뉴스일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에게 뉴스의 분별력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활용, 올바른 뉴스 이용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19년 '뉴스읽기를 실천하는 뉴스일기장'을 배포하여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원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 매뉴얼을 소개하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분야별, 연령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평소 뉴스 및 미디어 이용습관을 점검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해 보아도 좋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일기로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 혹은 그림 등 자유롭게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색종이, 스티커, 색연필로 여러분의 일기장을 재미있게 꾸며도 좋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어린이부터 직장인, 가족, 어른인까지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뉴스·미디어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일기로 기록해주세요!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뉴스·정보에 적절히 접근하여 분별력 있게 이용하는 능력. 뉴스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콘텐츠 공유나 공감 표시하기)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뉴스를 이용하는 능력(뉴스 저작권 준수, 댓글 예절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우수사례집



제 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소개

참여자 통계

주제별 통계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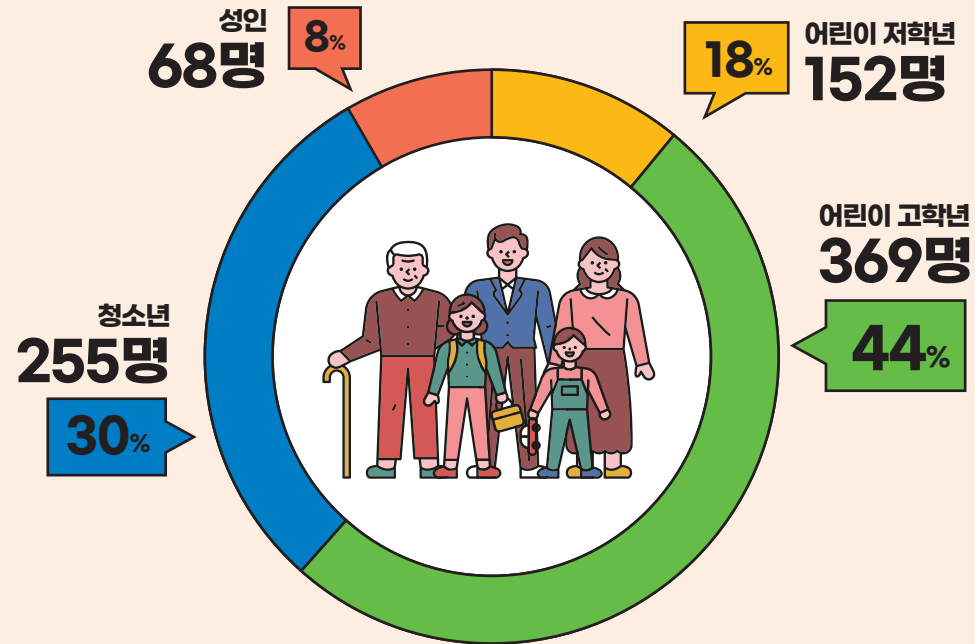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제 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평

제3회 뉴스일기 참여자 통계

전 연령대에서 참여한 제3회 <뉴스일기 뉴스일가> 공모전은
어린이 고학년의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청소년, 어린이 저학년이 순이었습니다. 최다 일기장 제출은 6권이었으며,
최다 일기장수는 308장이었습니다.
최연소 참여자는 8세, 최고령 참여자는 78세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뉴스일기, 언제 어디서든 뉴스일기 뉴스일기로
건강한 뉴스일기 습관을 우리 함께 해요~

연령별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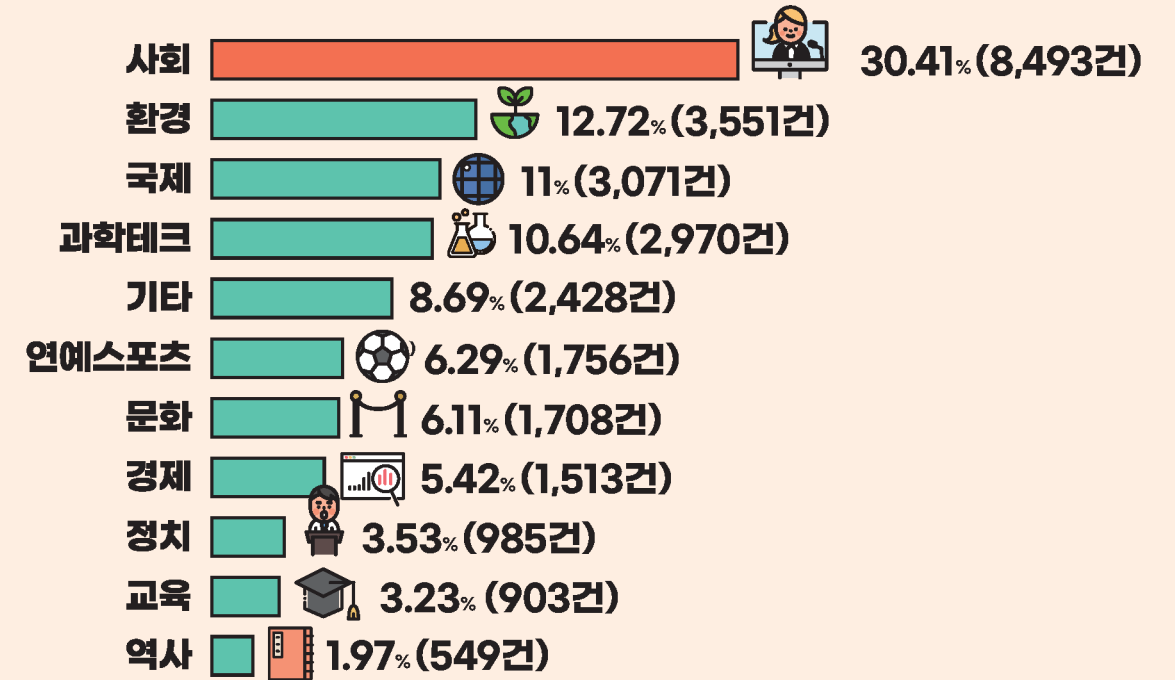
최다 일기장, 최다 일기장수



최연소, 최고령 참여자



제3회 뉴스일기 주제별 통계



연령별 관심 주제



8대 핫이슈

K-컬처



나는 한류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행과 세계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쫓으며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문화는 독창성을 지닌 고유한 민족문화로 발전하면서 높은 수준의 세계문화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위를 달성해 왔다. 최초 한국어 노래 1위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빌보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매일 뉴스에 나와서 처음 찾아보았다. 빌보드 차트는 최신음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차트인데 방탄소년단 이외에도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이 차트에 올라 대단한 것 같다. 빌보드 홈페이지를 보면 K-POP이 하나의 장르로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가 즐긴다!**



일상회복을 향한 노력



올림픽 스타 탄생부터 개최국과의 논란까지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관심



편한 만큼 늘어나는 사건과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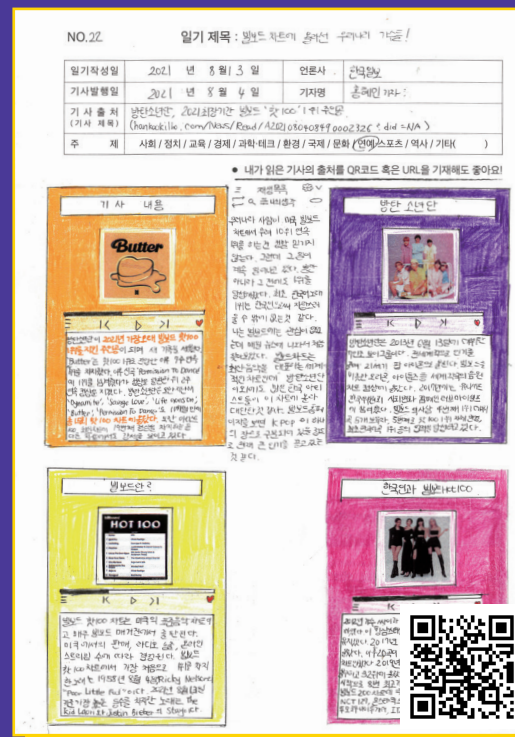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내일을 바꿀 기술



나부터 실천하는 환경보호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2

코로나19

일상회복을 향한 노력



청소년 - 박주은

약 2년 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점점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이 지겨운 바이러스와는 멀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전부터 '오미크론'이라는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인 - 우명희

코로나 19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절제하게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의 문화까지 멈추게 만들었다. 더구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결혼을 미뤄야 했다. 이런 우리의 멈춤이 방역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애 과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3

올림픽

(하계/동계/패럴)

올림픽 스타 탄생부터 개최국과의 논란까지



어린이 저학년 - 김재이

장애가 있어도 열심히 경기를 하는 파르티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번 신문을 읽고 다짐했다. 나는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청소년 - 전서현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편파판정으로 뭉개버리다니 이 무례한 행동들은 무참히 기록될 것이고 ISU(국제빙상연맹) 과 중국은 영원한 후회 속에서 비판과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llegible]

NO. 16

일기 제목: 코나로 안구쇼크

일기 작성일	년 월 일	연분	조선분필 A10판
기사발행일	2020년 5월 14일(금)	지명	김성모 기자
기사 출처 (기사 제목)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늦춰... '코로나 인구 쇼크' 온다		
주제	사회/정치/국회/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1. 살려는 나쁜 예비 부부 오모 (32세) & 전모 (32세)
 아들이 찰떡-결혼 미루기조차 할
 이유: 코로나 19 때문

2. 사례에서 의한 결과는?
 결혼 = 출산
 원인으로 전만
 • 결혼 연령 6.7세 상승
 • 여성 출산 계획: 10%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고양학회 - 포럼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출산율 하락과 위축을 볼 것

• 우리나라 19는 특히 늦게 많은 것을 잘라내려서 만든것.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사람 삶의 질은 나쁜 우리로 둘러싸게 만들어서 만든것. 더구나 본론을 앞둔 예비 부부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도들이 외출을 프로지망. 우리 생애와 과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 예제처럼 생애이름을 찾아볼때 이미 1인 한배, 결혼을 안할만 이런은 사람들이 모였을거서 결혼식을 미루거나. 그러나 편리하게 자녀 계획도 늦추실수 밖에 없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걱정인데 앞선 태도일지 모르나.

• 집에서 가족이 바라는 시간이 짧아지면 임의적이 할 활동은 2020년도-결혼을 미루거나. 이런 상황을 보고 자라는 시대. 어떤 것들이든? 어떤은 나쁜 생각이 없었지만, 생활은 어렵다. 생활은 더더욱 어렵다. 가족이 있든 것은 긍정적인 것은 것 같다.

• 고대부터 많은 대를들 장래 때문에. 가끔 딸이 대를들 하면은 생활이 달라진다고 한다. 지금과 다른 결혼을 하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나면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나 할 때에나 "그것이나"라 비난할것. 생각이 고집을 들면은 편이 바뀔것.

4. '코로나가' 생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결혼과 고- 만남은 지체하는 것. 박력 측면에서 결혼은 결혼-출산이생 생애에 단계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미혼 여성들: 결혼 의향 부정적 > 긍정적 변화
 [설문 여성 "더 빨리 들어와야겠다" 8배 많음
 • 남성은 오히려
 이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집 안이 바빠서 시간간지, 생활이 바빠서 아이들 돌봄 부담을 여성에게 더 옮김
 결과: 젊은 여성 집안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높아짐.
 • 두자녀가 있을 여성 - 출산 계획 소음
 한 자녀 여성 - 부정적인 변화.

NO. 16

일기 제목: 대단한 장애인 선수 파르티카!

일기작성일	2021년 8월 5일	인문사	어린이 동아
기상발행일	2021년 8월 4일	기자명	강재성 기자

기사 출처
(기사 제목)

장애인 탁구 선수 파르티카의 한계 뛰어넘는

주 제

시정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테크 / 환경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 날아점라★

파르티카: 신체적·감각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해
퍼즐은 움직임, 대화, 복싱, 축구 탁구·테니스·바드민턴 등에서
두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상대 팀과 서로 겨루는 경기 방식.

★ 운동요약★

- ① 오륜초와 파르티카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섰다.
- ②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있는 파르티
카는 관심을 받고 있었다.
- ③ 장애를 갖고 태어난 파르티
카는 여러경기에서 공에 안
맞은 목에 걸었다.

★ 전개 요약 및 나의 생각★

나는 장애인 선수들이
한 경기를 하는 파르티카
가 대단하다고 생각하
고 있다. 게다가 공에 안맞고 여러
번 따서 여러 마디다.
나는 오랜 신문을 읽고
나도 다짐했다. 왜냐면
나는 나중에 최선을 다하고
명심한 한 것이다. 라고야.

④ 파르티카는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것은
도전과 다름없는 어려운 것
목련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⑤ 파르티카는 “
일이 나하면
무조건 악수



파르티카(왼쪽)와 오륜초(오른쪽)가 경기하는 모습



[illegible]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4

20대 대통령선거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관심



청소년 단체 - 소국과민

현재 19세인 내가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치와 법률이 눈에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현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다.



성인 단체 - 나나라

다양한 사회 문제 속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5

배달앱

편한 만큼 늘어나는 사건과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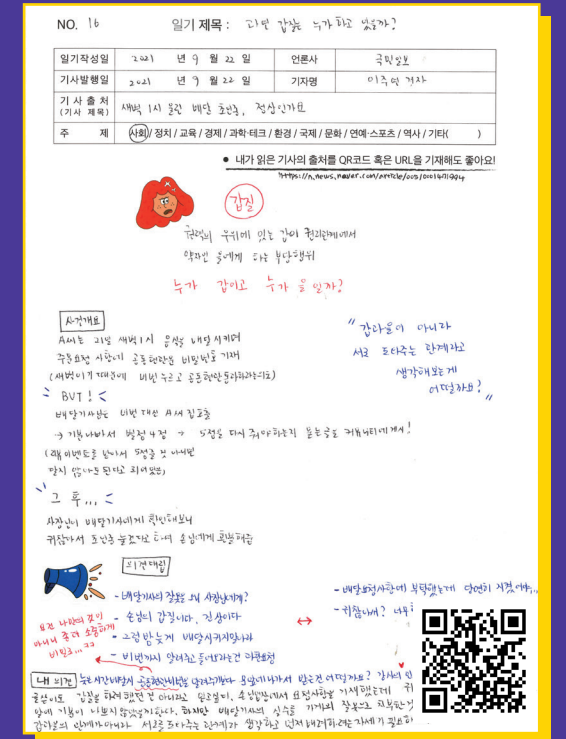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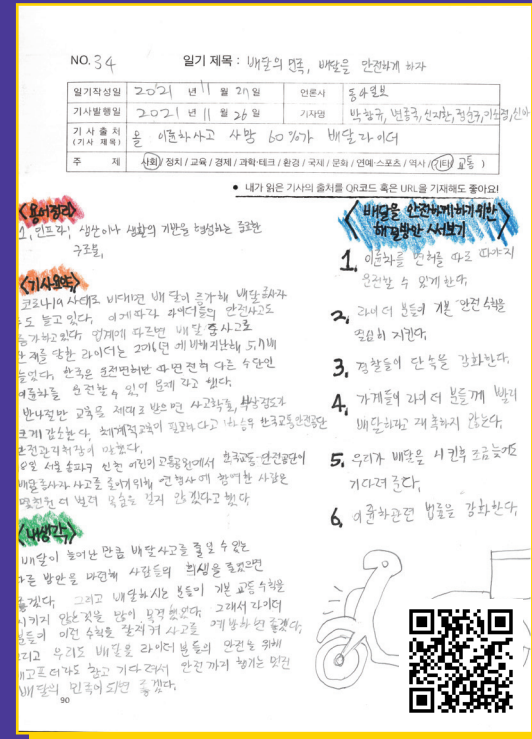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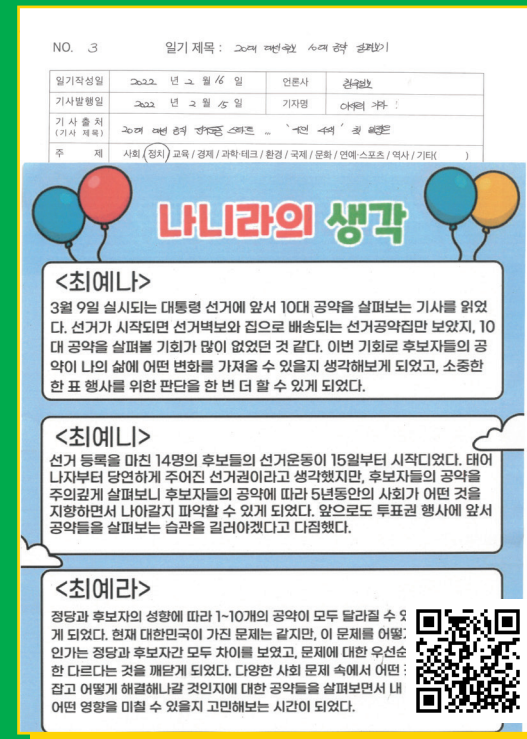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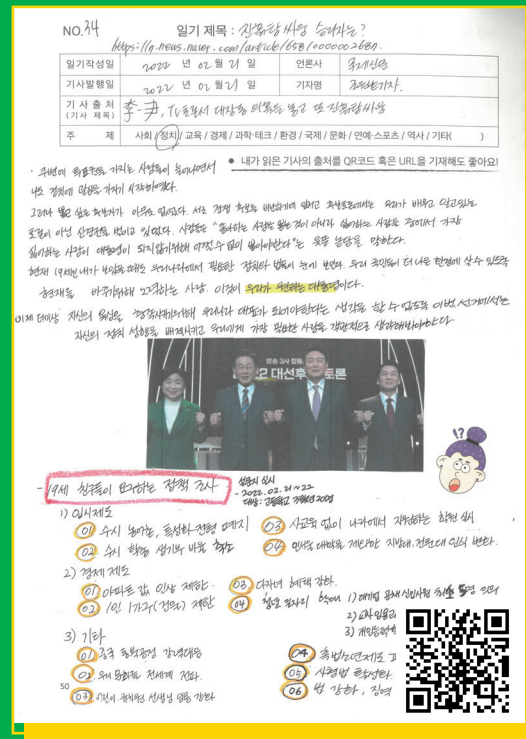
청소년 - 손영규

배달하시는 분들이 기본 교통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많이 목격했었다. 그래서 라이더 분들이 이런 수칙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하면 좋겠다. 우리도 라이더 분들의 안전을 위해 배고프더라도 참고 기다려서 안전까지 챙기는 멋진 배달의 민족이 되면 좋겠다.



성인 - 이나래

늦은 시간 배울시 공동현관비번을 알려주기 보다 문 앞에 나가서 받는건 어떨까요?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라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 학교폭력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됐다. 언어폭력은 학교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었다.



근본적으로 부모교육이나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등의 복지가 동반되면 좋겠다. 한걸음더 아동학대 관련되는 그림책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어 혹시 모를 아동학대 피해자가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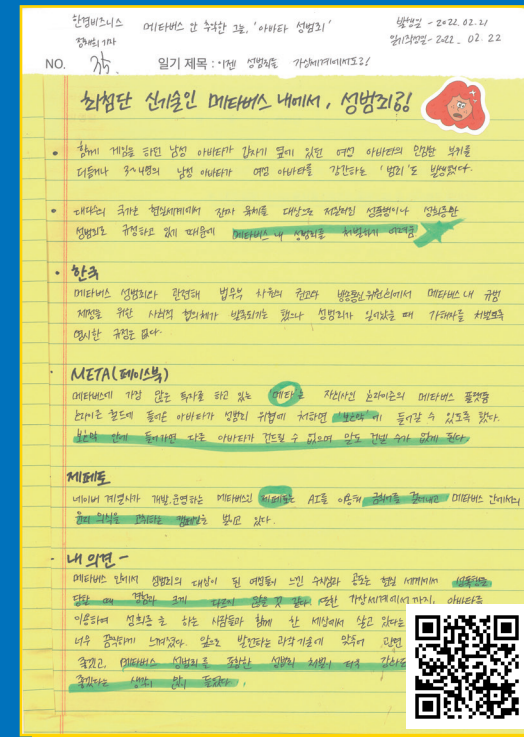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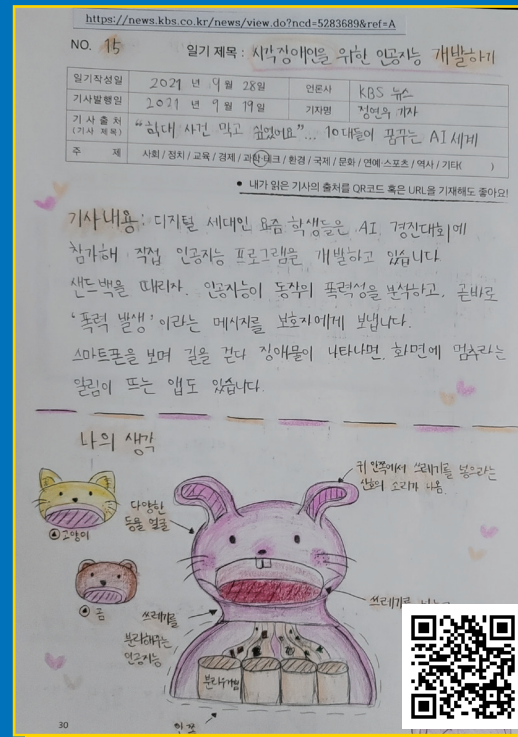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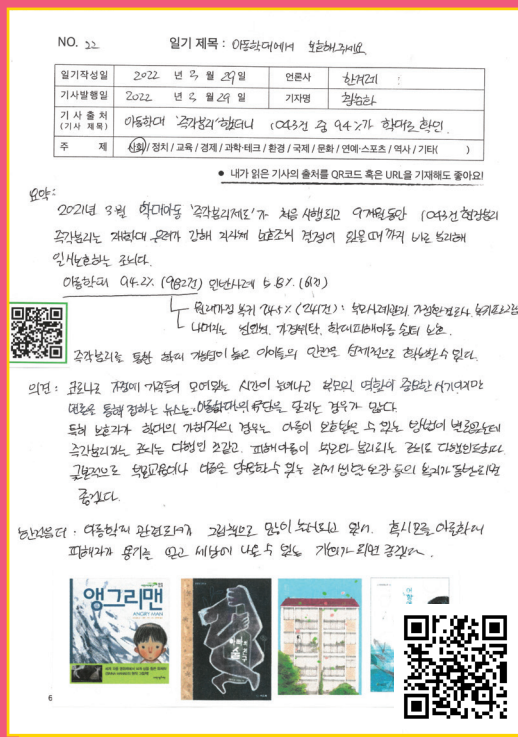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하기

- 1) 다양한 동물 얼굴
- 2) 귀 안쪽에서 쓰레기를 넣으라는 신호의 소리가 나옴
- 3) 쓰레기를 분리해주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안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느낀 수치심과 공포는 현실세계에서 성폭행을 당할 때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에 맞춰 관련 법안도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 메타버스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뉴스일기로 알아보는 8대 핫이슈-8

환경보호

나부터 실천하는 환경보호



어린이 고학년 - 방마리

본리수거 했으니까 볼 끄고 나왔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구는 여전히 아파보여.
 훌쩍훌쩍 콧물을 흘리고 펄펄 열이 나 아무래도 나 혼자서는 안되나봐 모두 같이 실천해보지 않을래?



청소년 단체 - N.L

원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에 주 원인 중 하나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위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그 해결방안으로 박테리아가 플라스틱을 먹고 분해하는 원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

NO. 10 일기 제목: 지구온난화...가 일기 시 쓰기

일기작성일	2021년 8월 24일	언론사	어린이동아
기사발행일	2021년 8월 26일	기자명	조윤진
기사 출처 (주제 포함)	김정은 비단, 하세미 다른 나라, 산설이 만든 구름		
구분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 **유기·산하기보** (유기 산 아래에 하천들이 흘러 간다고) - 어떤 지역에 딸린 산세.

▲ **기타 보역**: 최근 산계곡으로 가장 큰 현상이 산간지역에 바위가 있다 하여 새를 잡아 싹쓸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산은 산과가 산간지역에 가도 사라진 것만 같아 돌출하는 것 같다.

▲ **바지굴**은 바위에 굴이 있어 눈의 눈자루 참이러서 사람이 들어가면 바지굴이 되며 눈이거니와 눈이 바지굴이 아닌 장터이다.

▲ **내가 볼까** 지산 산은 호연도 바위에 바위 현상은 '사해바위'라고 불린다.

▲ **산골**은 물이 내려가면 바위에 영향을 끼치는데, 연가 하는데 호연이 호연이 바지굴이 발생한다.

▲ **호연도**는 호연도바위라고 한다.

지구의온난화

불리하게 했었니까
 불 끄고 나왔으니까
 곤란은 줄 알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아파했
 출퇴근할 때
 커피를 들고
 평판
 열이나.
 아무래도
 나 혼자만 안되나봐.



NO. 2. 일기 제목: 인상 속 미세플라스틱

일기작성일	2021년 6월 10일	연onso	코인31투데이
기사발행일	2019년 10월 21일	기자명	송혜진
기사출처 (지.제.사)	이세종연구소 <u>영유아에게 주는, 미세플라스틱 피해발생은 어느 정도?</u>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OR코드 혹은 URL

[illegible]

**사진으로 보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제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심사대전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 제대로 읽은 뉴스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만,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뉴스는 독이 되어 판단을 흐린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좋은 뉴스를 가려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주는<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올해는 총 618명이 참여해 27,927장의 일기장이 작성되며 뉴스일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뉴스 일기는 어떤 차별점이 있었을까? 현직교사, 언론인, 교수 등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6명의 심사위원에게 제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심사평을 들어보았다.

제3회<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에 재직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 교육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뉴스일기를 심사했습니다.

언론학 교수

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입니다. 청소년(본선), 성인(본선)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저는 고등학교 수석교사입니다. 제3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서 청소년과 성인 부문을 심사했습니다.

신문기자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취재하는 신문기자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및 성인 부문 뉴스 일기를 심사했습니다.

교육학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 교수의 시선에서 '뉴스읽기 뉴스일기' 초등 저학년 및 고학년 심사를 맡았습니다.

방송기자

저는 사회부, 정치부 등에서 근무한 13년 차 방송기자입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으로써 어린이 부문의 심사를 맡았습니다.

01

뉴스일기를 심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뉴스를 읽는 행위는 세상을 제대로 해석해 삶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설정하기 위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때문에 뉴스를 읽은 뒤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하고, 일기라면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신문기자

뉴스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실함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저는 '참가자가 뉴스를 읽고 그 경험을 일기로 써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성장했는가'를 가장 중요한 심사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 고등학교 교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했는지를 유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일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지, 그리고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기반으로 일기를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 교육학 교수

단순히 기사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사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에 주안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글의 형식에서 나아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 방송기자

뉴스 일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뉴스를 정확히 읽고 요점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뉴스 읽기의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 초등학교 교사

02

가장 인상깊게 읽은 뉴스 일기를 소개해주세요

성인 부문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의 교육을 위해 꾸준히 뉴스를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리한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 고등학교 교사

과학 관련된 기사들만 꾸준히 찾아서 읽었던 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학생의 일기에서는 자신만의 이야기 색깔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버거운 내용의 듯 보이는 기사도 찬찬히 살펴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서툰 글씨지만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일기여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이 읽은 뉴스의 문제 의식과 연결지어 고민을 적어 내려간 학생의 뉴스 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외교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외교와 관련된 기사를 열심히 스크랩했던 고등학생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쓴 뉴스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신문기자

환경 관련 뉴스를 읽고 쓴 시가 인상깊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한 행동들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담긴 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이 뉴스를 읽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에 대한 시, 만화, 그림 등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어느 일기장을 딱 잡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일기장이 소중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작성한 저학년 어린이의 일기부터 자신이 기자였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라며 기사를 품격있게 비평한 고학년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길수록 어린이들의 생각이 폭넓게 성장하고 있음을 모든 일기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방송기자



03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뉴스일기 작성
꿀팁’은?

일기 분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포맷을 구성한 후 꾸준히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면 읽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즐거움이 전달됩니다. - 신문기자

뉴스를 읽고 본인의 말로 요약 정리해 보세요. 본인의 말로 내용을 요약해보면 뉴스에서 다룬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 보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추가 정보를 찾거나 해당 뉴스 및 사안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 언론학 교수

세상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사를 정리할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해석하는 연습이 있다면 뉴스 일기를 쓸 때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초등학교 교사

그림, 그래프, 스토리텔링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보세요. 단, 그러한 표현 수단이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고 비평하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 고등학교 교사

04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뉴스는 교과서 지문보다 어려운 어휘가 많은데도 학생들이 차분히 읽어내려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처음 쓴 일기와 마지막에 작성한 일기에서 학생의 성장이 눈에 보여 심사하는 제가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어린이들이 미숙하고 아직 생각이 깊지 않다고 보는 어른들도 있지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생각이 깊고, 새로운 관점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생각을 어른들이 귀 기울여 들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

누군가의 일기를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읽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뉴스일기는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그 자체로 가치있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동심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고 세상을 향한 날카롭고 깊이있는 분석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일기장을 덮을 때마다 언론인으로서 더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방송기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품인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한 작품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가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고등학교 교사

공모전 심사를 통해 뉴스읽기 활동에 적극적인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뉴스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 학생들은 이전 뉴스일기 공모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뉴스읽기 활동이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 언론학 교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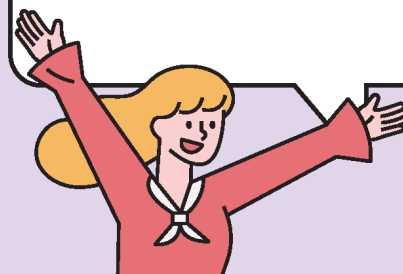
더 좋은 언론과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희망이다
- 방송기자

일기장

나의 일상과 나의 세상을 기록하는 일기장이다
- 초등학교 교사

꽃밭

어린이들의 생각이 피어나는 꽃밭이다
- 초등학교 교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성인에게는 올바른 신념을 제공하는 ‘뉴스읽기 뉴스일기’. 이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지켜나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원한다.

행복한 도전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 고등학교 교사

‘뉴스 읽기 뉴스 일기’는
○○○이다!



공부

세상을 배우며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공부다
- 고등학교 교사

해방

늘 숙제 같았던 읽기 활동이 뉴스 일기를 통해 해방되다!
- 신문기자



수상 대표작 모음

이사장상 수상작

개인부문 수상작

어린이 저학년 부문 인터뷰
어린이 저학년 부문 수상작
어린이 고학년 부문 인터뷰
어린이 고학년 부문 수상작
청소년 부문 인터뷰
청소년 부문 수상작
성인 부문 인터뷰
성인 부문 수상작

우수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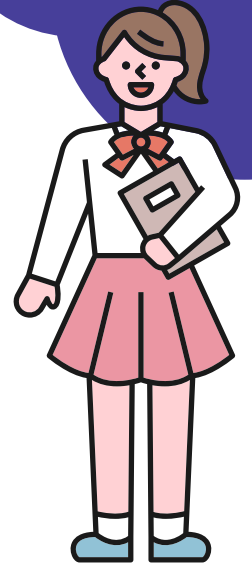
단체부문 수상작

어린이 저학년 부문 인터뷰
어린이 저학년 부문 수상작
어린이 고학년 부문 인터뷰
어린이 고학년 부문 수상작
청소년 부문 인터뷰
청소년 부문 수상작
성인 부문 인터뷰
성인 부문 수상작

특별상

이사장상 인터뷰

김수린(해마루중학교)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사실 아직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참가에 의의를 두었기에 중학생인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Q2.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선생님의 권유로 1회부터 매년 참가해온 대회였기에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일기장이란 무엇인지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저에게 뉴스일기장은 안경입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지 않던 칠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뉴스를 읽고 뉴스일기를 쓰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욱더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Q4. 뉴스 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에피소드라기보다 처음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뉴스를 고르던 저에게 선생님은 그와 관련된 다른 기사도 찾아보며 다양한 의견을 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덕분에 한가지 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그 방법은 저의 핵심적인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 되었기에 아직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Q5. [나만의TIP①]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만의 비법은 한 사건에 대해 하나의 뉴스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한 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뉴스를 더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사회적인 뉴스는 대체로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저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의견들을 풀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찾기, 학생규정, 학교 폭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서로 다른 여러가지 입장들을 보았으니 저의 입장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의견을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일기를 쓰면서 다양한 표현이 필요했는데 그 표현이 글에 적합한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하나의 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봄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것 같고 다양한 표현을 이용해 일기를 쓰려함으로써 조금 더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9. 제 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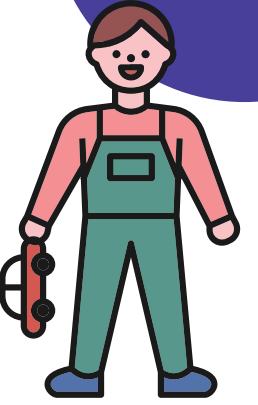
수상을 떠나 꾸준히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다보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며 모든 일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이런 대회를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대학교와 진로를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상자 인터뷰

개인 - 어린이 저학년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정주원 : 택배를 보내는 날 책꽂이에 꽂혀 있던 뉴스일기장이 안 보여 서운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열매를 맺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뉴스일기를 쓰면서 줄어든 연필과 많은 도움을 준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상_김세령 : 하루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일년이 되듯이 저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뉴스일기 은상이라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상_이강희 : 아무 욕심없이 뉴스 일기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1년동안 꾸준히 뉴스 일기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도 뿌듯했습니다.

동상_이재현 : 상을 받으려고 공무전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동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한 장씩 늘여가는 일기장을 보며 많이 뿌듯했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해 준 뉴스일기 공모전 덕분에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상_김재이 : 참가상만 받아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상을 수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를 읽고,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지난 10개월 동안 울고 웃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감동스러웠습니다. 동상_손진규 : 뉴스 일기를 쓰게 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는 힘이 커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신문을 읽고 일기를 써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Q2.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은상_김주원 : 사촌 누나가 신문읽기 쓰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였어요. 엄마께서 열심히 하면 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신문읽기 쓰기를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김재이 : 3~4학년이 되면서 신문을 읽고 스크랩을 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

종종 하셨습니다. 때마침 어머니께서 들고 계시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통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노시현 : 오빠가 제2회 뉴스일기 공모전 초등 저학년 부분에서 금상을 받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샘이 났어요. 그 이후 초등학교가 되면 꼭 도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오빠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손진규 : 신문읽기 밴드 모임에서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신문을 읽고 일기를 써오던 중, 작년 대회에 참가한 친구를 통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한윤솔 : 작년 봄에 학교 도서관에서 학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줌 수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저에게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일기장이란 무엇인지 한 줄로 표현한다면?

금상_정주원 : '자전거'입니다. 내가 페달을 밟아야 움직이는 자전거처럼 뉴스 일기장은 내 힘으로 뉴스를 읽고 생각을 하면서 써야 세상을 보는 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_손진규 : '보물'입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상_황선하 : '뿌리'입니다. 나의 생각 주머니를 꼭 붙잡아주고, 새로운 생각을 저장하게 해주니까요.

동상_노시현 : '밥'입니다. 매일 밥 먹듯이 신문을 꼭꼭 곱씹어 읽고 스크랩을 하면서 생각을 키워가기 때문입니다.

동상_김태연 : '어깨'다. 친구들에게 뉴스 얘기를 할 때마다 어깨를 으쓱 으쓱하게 되니까요.

동상_박신아 : 나에게 뉴스 일기장은 '지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만의 생각으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_한윤솔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상_김재이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책'입니다. 뉴스 기사를 읽고 관련 뉴스와 동영상 등을 찾아 글로 정리하면서 뉴스 일기장은 나만의 이야기책이 되었습니다.

Q4. 뉴스 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금상_정주원 : 뉴스 중에 치킨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치킨이 생각나 실감나는 뉴스 일기를 쓰기 위해 치킨을 사달라고 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날 치킨을 먹고 쓴 뉴스 일기는 맛있고 생생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은상_김세령 : 뉴스 읽기를 위해 모아둔 신문과 잘라놓은 기사들을 부모님께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린 덕분에 온 가족이 아파트 앞 폐지 수거 공간을 몇 시간 동안 뒤진 기억이 있습니다.

은상_이강희 : 산불 뉴스를 읽고 산불에 대한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화를 만들면서 배경, 캐릭터, 대사를 제가 직접 선택하고 꾸몄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상_김서원 : 신문에 로봇 뉴스가 많이 나와요. 덕분에 머릿속에 재미있는 로봇들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커서 진짜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동상_손진규 : 뉴스 일기를 쓰기 위해 가족들과 여행이나 캠핑을 갈 때도 항상 신문과 일기장을 챙겨 여행지나 캠핑장에서 일기를 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상_이재현 : 저희 가족(언니 3명, 엄마, 나)은 각자 참여하여 5권의 일기장을 신청했습니다. 서로 요일을 정해 놓고 작성하긴 했지만 적당한 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기사를 고르기 위해 기사 정탈전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동상_한윤솔 : 다 쓴 뉴스일기를 제출할 때 선택순 치킨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엄마에게 빨리 택배를 보내라고 재촉한 일이 있습니다. 운이 좋게 치킨 쿠폰을 받을 수 있어서 가족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는데, 내 힘으로 치킨을 살 수 있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Q5. [나만의TIP①]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금상_정주원 :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고 아침마다 뉴스를 읽으며 신문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뉴스 기사를 찾은 후 한두 달 기사를 모아 비슷한 주제의 기사를 비교하거나 보충하면서 뉴스 일기를 작성합니다.

은상_김세령 : 저는 뉴스 일기를 작성할 때 국어사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전에 스스로 국어사전을 펼쳐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은상_조이폴 : 기사 내용을 쓴 뒤 '검토'를 하니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기사 내용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상_김서원 : 뉴스나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직접 실천(플라스틱 안 쓰기, 에너지 절약 불끄기)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사를 읽은 후 그 제품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내용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동상_황선하 : 매일 신문읽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록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동상_손진규 : 좋아하는 기사를 선택해 어려운 낱말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그 낱말로 짧은 글짓기를 해보면 확실히 어휘 구사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상_김재이 : 저는 그림 그리기와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과 만화도 그려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꾸미고 색칠하다 보니 뉴스일기를 쓰는 것이 더욱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딱딱하게 보이는 뉴스일기를 재미있게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주면 즐거움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은상_김세령 : 부모님께서 모든 뉴스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신문 기사를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방송뉴스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대로 원인과 결과를 유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상_이강희 : 뉴스를 선택할 때 뉴스 기사의 제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해당 뉴스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짐작되면 어떻게 뉴스일기를 써야 할지 생각이 금방 떠오르고요.

동상_노시현 : 기사를 읽고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적고 또 쓰고 읽어보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을 매일매일 적으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적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동상_손진규 :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를 선택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보며 신문과 친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동상_이재현 : 신문기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문 기사를 학교에서 보고 들은 것과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결지어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상_정주원 : 어떻게 하면 더 일기를 재밌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구도 알아보고,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해보았는데 뉴스를 읽고 다시 일기로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김세령 :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족 여행이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는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저의 역사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자부합니다.

동상_한윤슬 : 저는 동물에 관련된 뉴스가 재미있어서 그것만 하고 싶었는데, 뉴스 일기를 쓰기 위해 다양한 뉴스를 읽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어요.

동상_김서원 : 글씨 쓰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많은 글을 쓰는 건 어려웠습니다.

동상_김재이 : 처음에는 모르는 용어와 어려운 한자 어휘가 많이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을 단어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어휘력이 늘어 신문기사 읽는 것이 훨씬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은상_김세령 : 뉴스가 재미있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어른들은 왜 뉴스를 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뉴스를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꼈었는데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 뉴스를 예능처럼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알게 되어 주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은상_이강희 : 뉴스 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뉴스를 대

부분 신문기사로 접했으나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 신문뿐 아니라 TV뉴스, 유튜브 뉴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소식(난민, 올림픽 등)을 빠르게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동상_김서원 : 아빠가 뉴스를 보시면 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뉴스를 보면서 아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아빠와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상_한윤슬 : 뉴스를 읽고 나서 그 기사의 중요한 내용을 잘 간추려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뉴스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상_손진규 : 꾸준한 신문 읽기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동상_박신아 : 뉴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가지 대상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특히, 생각한 것을 글로 쓰는데 어려웠는데 뉴스 일기를 쓰다보니 글쓰기도 좋아지고 재미있어졌어요.

동상_김재이 :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지구와 이웃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금상_정주원 : 뉴스 일기는 뉴스 읽기에서 시작합니다. 일기를 쓴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뉴스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 뉴스 읽기가 익숙해지면 그때 뉴스 일기를 쓰기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뉴스 일기가 더 친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은상_김세령 : 항상 시작은 힘들고 하기 싫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만 한다면 그 속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작해 보세요.

은상_이강희 : 뉴스를 선택할 때는 새롭고 흥미롭고 나의 수준에 맞는 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준에 맞는 뉴스를 선택하면 생각도 잘 떠오르고 새로 알게 된 단어도 어렵지 않게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한 편씩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쓰면 나중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상_박신아 : 꼭 한번 완주해보세요. 매회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거예요.

동상_손진규 : 신문을 읽고 꾸준히 일기를 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새 나만의 멋진 일기장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모두모두 파이팅!

동상_김재이 : 일단은 무조건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나중에는 재미까지 붙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Q10.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금상_정주원 : 뉴스 일기장을 제출하면서 일기쓰기를 멈췄지만, 뉴스 읽기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여한다면 뉴스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아홉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열 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은상_김세령 : <뉴스읽기 뉴스일기> 덕분에 저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올 때마다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을까? 라는 설렘을 느끼게 해준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전하고 싶습니다. 단,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뉴스 일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관련하여 직접 동영상 제작하고, 발표를 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쌓여 생생한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상_이강희 : 일기장이 줄이 없는 형식이어서 불편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형식의 일기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일기장을 심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상_박신아 : 뉴스일기 공모전을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일기장이 없어지니까 허전해요.

동상_김재이 : 요즘은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쉬워졌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뉴스 읽기는 글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독해력, 사고력 등의 능력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얻을 기회를 많은 친구들이 동참하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널리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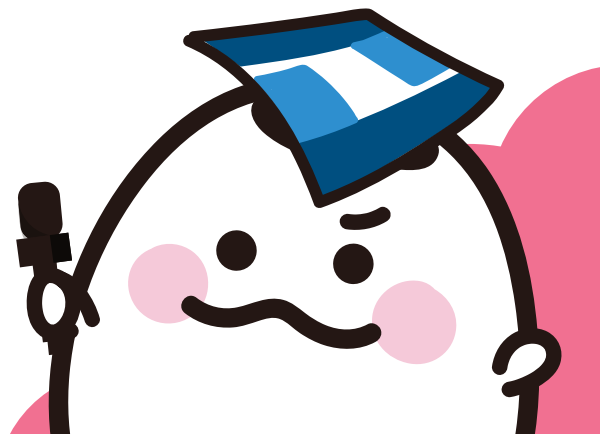
동상_노시현 : 저는 4회 공모전도 도전하고 싶고, 더욱 노력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공모전을 해주세요.

동상_한윤슬 : <뉴스읽기 뉴스일기>의 종이기가 조금 얇아서 아쉬웠어요. 사인펜으로 작성해도 비치지 않게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 주세요.

동상_노시현 : 다른 친구들도 많이 공모전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수상한 모든 친구들 언니 오빠들 축하해요.

동상_박신아 :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에서 또 만나요~

동상_손진규 :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 참여는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모전에 참가해 멋진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봐요 ^^



수상자 인터뷰

개인 - 어린이 고학년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오유림 : 뉴스 일기를 쓰면서 뉴스 보는 습관이 생겨 아침마다 20분씩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만든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매일 매일 열심히 한 결과가 직접 눈에 보이니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나에게 도움도 되고 상도 받으니 이 대회에 참여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상_배정윤 : 어떻게 하면 뉴스를 더 잘 읽고, 일기를 더 잘 쓸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며 쓴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매우 귀찮고 힘들었지만 좋은 습관도 만들고 상까지 받아 기분이 좋습니다.

은상_이서현 : 초등학교 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도전했는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생활은 매우 바쁘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뉴스 일기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은상_이현우 : 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뉴스를 읽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는 과정을 즐기면서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전 덕분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글쓰기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상_안소이 :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을 타게 되다니 놀랍네요. 잘쓸수 있게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상_이수연 : 저에게 특별한 습관을 선물해준 뉴스일기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니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어나갈 좋은 습관을 길러준 뉴스 일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동상_백민선 : 상까지 받을줄 몰랐는데 수상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동상_이지현 : 제2회 공모전에 참여하고 난 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제3회 때에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여러 분야의 기사를 읽기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스일기장을 제출하면서 작년에 비해 뿌듯함이 컸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Q2.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오유림 :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을 것 같고, 뉴스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이현우 : 초등학교 5학년 때 개인 노트에 인상적인 기사를 요약하고, 간단하게 생각이나 느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43편의 첫 번째 뉴스 일기가 완성되는데요. 6학년이 되면서 선생님을 통해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김시연 : 제가 원래 뉴스 논평을 하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결심하기 어려웠지만 도전해보려는 마음이 커져서 시작했습니다.

동상_노도현 : 제2회 때 참여해봤는데 뉴스일기장을 쓰니 좋은 점이 많아서 한 번 더 참여해보게 되었어요.

동상_임윤 : 원래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딱히 많진 않았 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관심 분야의 기사들을 찾아 보여주셨고, 그런 기사들을 모으다보니 자연스럽게 뉴스일기 쓰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 일기장이란 무엇인지 한 줄로 표현한다면?

은상_강윤서 : '세상을 보는 창'이다. 뉴스 일기를 쓰며 우리 사회를 넓은 시야로 보게 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은상_안현준 : 공부 실력을 키워주는 '지름길'이다. 매일 뉴스를 읽고 일기를 쓰면서 독해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은상_양원서 : '밥' 이다. 내가 매일 밥을 먹고 자라듯이 뉴스 일기를 쓰면 쓸수록 생각 주머니가 자라 일기장도 멋지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은상_이서현 : '선생님' 이다.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듯이 많은 지식을 알게 해주고 사회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은상_이현우 : '성취감' 이다. 뉴스 일기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 방법들을 체험하며 나만의 35편 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은상_황태희 : '추억' 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신문일기를 하면서 훗날에 추억할 수 있는 멋진 기억들이 남았습니다.

은상_박서윤 : 어려운 '숙제' 이다. 해결하면 그만큼 뿌듯한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상_김송윤 : '공양미 300석' 이다. 심청전에서 공양미 300석이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었듯이, 뉴스 일기로 인해 미디어의 세계에 눈뜰 수 있었습니다.

동상_노도현 : '눈'이다.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상_박설원 : '역사서' 입니다. 시간이 지나 뉴스 일기장을 펼쳐본다면 뉴스 일기를 썼을 당시 일어났던 이슈, 사건 사고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상_방마리 : '성장일기'다. 뉴스 일기장 한 권 속에 글쓰기 실력이 성장하는 과정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동상_손예림 : 나에게 뉴스 일기장은 '백과사전'이다. 뉴스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도 알게 되고, 모르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상_이지현 : '자신감'이다. 뉴스 일기를 통해 나도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상_한예원 : '세계여행'이다. 코로나19로 집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지구 곳곳의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상_강루비 : '생각의 숲'이다. 뉴스 일기 덕분에 뉴스를 읽으며 내 생각을 더 깊고 다양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4. 뉴스 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은상_김리임 : 제주도 여행을 가다가 뉴스 일기장을 잃어버려서 1시간 동안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가방 제일 안쪽에 있었습니 다.

은상_배정윤 : 뉴스 일기에 '달고나'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는 달고나를 포도피기, 엄마는 쪽자, 큰언니는 뽕기라고 불렀 습니다. 나이와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서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상_배준서 : 뉴스 일기를 쓰면서 반에서 국어 1등이 되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뉴스를 읽고 뉴스 일기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어 실력이 높아졌나 봐요. 아이들도 꾸준히 일기 쓰는 아이로 저를 인정해주니 더 뿌듯하답니다.

은상_이서현 : 뉴스 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족들과 자주 찬반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편까지 나

뉘지는 일도 종종 있어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상_이현우 : 기사를 읽고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 영상을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한 장면을 위해 20~50컷 정도를 찍는 스톱모션 기법으로 만드느라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장면을 직접 그려서 찍고 편집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했던 활동입니다.

동상_박설원 : 뉴스 일기를 쓸 때 아이디어가 부족하곤 할 때면 항상 친구들과 화상 회의를 켜서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재미있게 뉴스를 썼던 게 기억납니다. 사실 화상 회의를 할 때는 뉴스일기를 쓰는 시간보다 수다 떨던 시간이 더 많았던 건 기분탓일까요? ^^

동상_방마리 : 뉴스 일기 개수가 30개를 넘길 때 쯤 첫 번째로 썼던 글을 보며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장이라고 글씨를 정성껏 쓰고 글도 열심히 썼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고칠 점이 다시 보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동상_연승아 : 뉴스 일기를 쓸 때 환경에 관한 뉴스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 영향으로 가족도 환경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Q5. [나만의TIP] 4회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금상_오유림 : 뉴스 일기를 매일 똑같은 형식으로 적으면 스스로도 재미가 없고 다 비슷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줄거리 요약, 그림 그리기,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뉴스일기를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상_배정윤 : 뉴스를 읽을 때, 한 신문사의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신문사의 기사도 읽고 서로 비교해 보며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다른 다양한 내용도 알 수 있어요.

은상_이서현 : 기사를 읽고 생기는 의문점을 스스로 답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은상_이현우 : 인터넷에 검색해 이수인 뉴스만을 찾아보지 말고 반드시 종이 신문을 구독해서 꾸준히 기사를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것들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를 읽다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추가로 검색



색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뉴스 읽기를 하면 됩니다.

은상_황태희 : ‘육하원칙, 해시태그 뉴스’를 추천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신문기사에서 찾고 다시 해시태그 기사로 짧고 간단하게 내 스타일로 만들어봐요. 주요 단어를 찾아 #을 붙여 표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동상_김시연 :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뉴스를 재미있게 전달하려면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뉴스를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마인드맵, 퀴즈, 자기 의견적기 등으로요.

동상_박설원 : 항상 자신이 주제로 정한 기사를 팩트 체크하면 좋아요. 지금 내가 올바르게 확실한 정보를 쓰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동상_방마리 : 정해진 분량의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 뉴스 일기를 내 개성대로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며 쓰니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상_연승아 : 저는 뉴스 일기를 쓸 때 먼저 뉴스를 요약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썼습니다. 또 제가 만든 광고나 내용을 정리하는 생각 그물 등나만의 또 다른 아이디어 등등을 덧붙여 그리거나 글로 썼습니다.

동상_이수연 : 뉴스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주로 읽어가면서 최대한 뉴스에 대한 흥미를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읽기 어려웠다면 천천히 흥미를 올려가게 비법입니다.

동상_이지현 :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관심이 가는 분야를 선택하여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고, 궁금한 점은 꼭 해결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동상_임윤 : 글도 좋지만 그림을 더해서 이해를 돕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기사 내용, 나의 생각, 어휘 등을 박스로 나눠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상_정민수 : 뉴스일기를 쓸 때 미루어서 한번에 쓰지 말고 1개씩 꾸준히 쓰는 것이 저의 방법입니다.

Q6. [나만의TIP@]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은상_배정윤 : 작성할 뉴스를 선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뉴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작성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상_배준서 :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찬

성과 반대의 의견을 적는 것이었어요. 찬성, 반대 어느 쪽 편도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는 것에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은상_이서현 : 저는 꾸준히 작성하는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급적 정해 놓은 요일에 쓰려고 노력했고, 날짜를 미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은상_이현우 :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의 시도와 창의적인 콘텐츠의 재생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읽고 생각을 넓히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접 UCC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기사 읽기를 더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동상_연승아 : 뉴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읽기만 하고 요약하면 기사만 읽고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까지 잘 정리하면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_이지현 :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깔끔하게 작성한 일기장은 작성 후에도 다시 읽어 보고 싶게 만들고, 뿌듯함도 두 배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동상_최나안 : 제 생각입니다. 뉴스를 요약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는 제 생각이 더 중요하다 싶어 머릿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끄집어내며 적었습니다.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상_오유림 : 처음 뉴스 일기를 쓸 때 어떻게 글을 적어 나가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의 예시를 보면 글씨도 예쁘고 내용도 좋게 잘 적어봤는데 저는 미술 감각이 좋은 것도 글 실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열심히 적다보면 자신만의 뉴스일기 형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은상_강윤서 : 매우 어려웠던 점은 기사 검색과 자료조사였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서 좋은 기사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 기사 관련 자료를 찾는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상_배준서 : 어려웠던 점은 토론에 맞는 기사를 찾는 것이었어요. 토론 뉴스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뽑기도 하고, 보일 때마다 오려두기도 했어요. 꾸준히 토론주제를 찾아야 하는 저에게 어린이 신문과 어린이 잡지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은상_이서현 : 마음에 드는 기사가 없고 중복되는 기사가 많을 때 기사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상_이현우 : 손으로 직접 쓰고 그려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편이 아닌데다 타이핑이 더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때는 한글을 사용하고 일기장에 옮겨 쓰는 방법으로 작성했습니다.

동상_김시연 : 저는 뉴스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떤 뉴스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거짓 정보나 부풀린 내용들이 적힌 기사도 많았거든요.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동상_노도현 : 매일 작성을 하다보니 여행 또는 캠핑을 갔을 때에도 뉴스 일기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동상_손예림 : 뉴스 일기장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뉴스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뉴스를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만 골라내야 하는 것이라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잘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상_연승아 : 저는 뉴스를 요약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요약을 해도 글이 길어서 기사를 짧게 줄이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상_이수연 : 뉴스 일기를 쓸 때 나의 생각을 쓰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쓰다 보니 가끔은 수업시간에도 뉴스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계속 생각해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저 나름대로의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동상_정은서 : 처음 듣는 단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려운 뉴스들에서 생각을 펼쳐내기가 힘들었습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_오유림 : 뉴스 일기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일기를 쓰면서 아침마다 뉴스 보는 습관이 생겼고, 뉴스 일기를 쓰지 않는 요즘도 항상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배경 지식도 많이 쌓였을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상_박하린 : 뉴스 일기를 쓰기 전에는 뉴스가 지루하고 재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뉴스가 저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것 같아 재미있습니다.

은상_배준서 : 뉴스 일기를 하기 전에는 국어가 많이 귀찮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뉴스 일기를 하면서부터 국어

가 점점 재밌어지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읽다보니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서 가끔 저도 모르게 아는 체 하기도 합니다 ^^

은상_이윤아 : 뉴스일기 작성 전에는 뉴스에 관심도 없었고, 나랑 직접 관련이 없으면 사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 다. 하지만 작성 후에는 뉴스 보도를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은 주제의 다른 뉴스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은상_이현우 : 뉴스 일기를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꾸준히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학생이 된 것이 가장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관점을 알게 되면서 나의 생각도 넓힐 수 있었고, 그런 경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얻게 된 점입니다.

은상_황태희 : 작성 전에는 글씨도 지렁이 같고, 구체적으로 기사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본다고 생각하니 완성도 있는 신문일기를 쓰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아직도 예쁜 글씨체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동상_김시연 : 전에는 뉴스가 나에게 너무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 느껴졌는데 뉴스일기를 쓰고 난 후에는 전보다는 친근하고 익숙해져 있었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상_박윤아 : 작성 전에는 기사도 별로 보지 않고 사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더라면 지금은 기사를 꾸준히 챙겨보게 되고 사회에 많은 관심이 생기며 그 기사에 관한 생각이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동상_방마리 : 뉴스일기를 작성한 후에는 확실히 전보다 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실력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글씨도 훨씬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상_임윤 : 뉴스 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뉴스 일기를 작성하니 선생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옵니다.

동상_황예원 : 뉴스 일기를 적기 전에는 제 생각을 알지 못했는데 글로 쓰다보니 제 생각을 어느정도 깨닫게 되었고 뉴스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은상_강윤서 : 이 공모전에 참가하신 여러분 용기가 대

단하네요. 솔직히 굉장히 힘들고요. 눈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 날까지 파이팅!

은상_배준서 : 뉴스 일기에 참여하면 다양한 지식도 쌓게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국어를 좋아하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하면서 문과 쪽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모두들 꼭 한 번 참여해보세요!

은상_안현준 : 다른 참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참가하세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은상_이서현 : 꾸준히, 끈기있게, 참여하면 어느순간 내 자신이 성장한 것을 볼 수있을 거예요

은상_이현우 : 작성 횟수를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적 시간이 여유로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한 주의 신문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언론사의 기사까지 모두 검색해서 읽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자신만의 멋진 일기장을 탄생시키길 응원합니다.

동상_김시연 : 도전해보지도 않고 어려울 거라는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익하고, 해보면 보람이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길 바라요.

동상_박윤아 : 처음에는 뉴스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된다면 뉴스 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이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동상_연승아 : 뉴스는 어렵고 지루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뉴스 읽는 것이 재밌고 신기한 일들이 많으니 뉴스일기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동상_이수연 : 뉴스읽기 뉴스일기라는 좋은 공모전을 접하게된 참가자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랄게요.

동상_이지현 : 요일을 정해 놓고 일기 쓰듯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상_한예원 : 처음에는 뉴스 일기를 쓰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보면 재미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Q11.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세요!

금상_오유림 : 처음 뉴스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다양한 형식의 뉴스일기 예시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더 쉽게 뉴스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상_배준서 : 2번이나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댔으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중학생이 되어도 뉴스 일기에 계속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_강윤서 :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뉴스 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지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일기 파이팅!

은상_황태희 : '매일, 열심히, 정성들여서'이 세가지를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음 공모전도 꼭 참가할게요.

은상_이서현 : 일 년 정도 뉴스 일기를 쓰면서 가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은상_이현우 :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뉴스를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최고의 공모전입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린이들은 수기로 작성하고, 청소년부터는 온라인 일기장 콘텐츠로 공모전이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된 결과물도 업로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_김시연 : <뉴스 읽기 뉴스 일기>가 저에게는 너무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어요.

동상_손예림 : 뉴스 일기 공모전을 계속해서 개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_연승아 : 보통 어린이들은 뉴스가 어른들만 읽고 지루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어린이들에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만들어주셔서 뉴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것 같아 고맙습니다.

동상_임윤 : 뉴스 일기장 노트가 유선으로 바뀌면 글씨를 더 또박또박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상_정민수 :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해주세요.

동상_박윤아 : <뉴스읽기 뉴스일기> 덕분에 사회의 일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

동상_방마리 : <뉴스읽기 뉴스일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자주 글을 쓸 일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수업시간에 글쓰기나 사회 이슈에 관련된 활동들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자주 느껴요. 감사합니다.

동상_이수연 :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물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뉴스를 흥미있게, 하루에 한번은 꼭 읽는 습관을 길러준 뉴스읽기 뉴스일기, 제 4회에도 수상을 노려보겠습니다!

동상_이지현 : 제2회와 제3회의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저에게 두 권의 뉴스 일기장이 생겼습니다.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모든 유혹을 뿌리친 결과 일기장이 탄생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감회가 새롭고 뿌듯합니다. 나를 성장시켜준 뉴스 일기장!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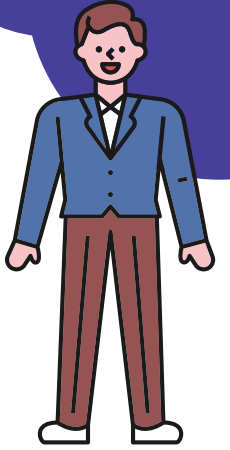
동상_정민수 : 초등학교의 끝을 뉴스 일기로 화려하게 장식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동상_정은서 : 뉴스 일기장 덕분에 원래 없던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인터뷰

개인 - 청소년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동상_방유비 : 지난 10개월간의 꾸준한 노력이 동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뿌듯합니다. 뉴스 일기를 통해 스스로의 성장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되어 기쁩니다.
동상_원영중 :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뜻밖의 희소식이었습니다. 임시 때문에 많이 지쳐있었는데 작년부터 꾸준히 참여한 공모전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 또 다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동상_조성경 : 뉴스 일기를 쓰는 동안 대회에 나간다는 부담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위해 노력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뿌듯합니다. 뉴스 일기의 부족한 점과 잘된 점을 피드백하며 질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2.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김하진 : 교내 동아리를 통해 뉴스일기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지만, 뉴스를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재미있어보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김정인 : 평소에도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건들을 읽어보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하는 무언가에 참여해서 꾸준히 해내고, 그 결과물이 보인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상_방유비 : 작년에 제2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올해는 더 잘 써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겨나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 일기장이란 무엇인지 한 줄로 표현한다면?

금상_김하진 : '연결' 입니다. 뉴스 일기를 통해 세상과 한층 더 가깝게 연결되었으며, 그를 통해 많은 것을 접하고 적성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은상_고다연 : '빈 종이' 입니다. 빈 종이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뉴스 일기장에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상_유예지 : 새로운 '눈' 입니다. 뉴스 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상_원영중 : '도화지' 입니다. 기회가 없어 말하지 못한 나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상_조성경 : '성장' 입니다.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 하루하루 세상의 이슈를 알아가는 사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폭이 넓어져 나의 생각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Q4. 뉴스 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금상_김하진 :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기사를 [리스크: 사라진 소녀들]이라는 책과 연결지어 뉴스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뉴스 일기를 쓰다보니 몇 가지 질문이 생겨 책을 쓴 작가님께 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뉴스 일기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동상_원영중 : 학교에서 반 전체가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뉴스 일기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뉴스 일기를 보여주면서 다같이 신문을 읽고 일기를 써보자고 권유했는데, 서로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찾아주고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상_조성경 : 동일한 사건을 다룬 두 신문사의 기사를 스크랩하다보니 '하나의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바라보면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Q5. [나만의TIP] 4회 참가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은상_양수민 :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뉴스 일기로 남겨보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글쓰기 실력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쓰면 뉴스 일기 쓰기가 더 재밌어져 좋은 습관이 됩니다.
동상_원영중 : 우수 사례집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엔 자유로운 형식이란게 정확히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는데, 사례집을 보고 내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동상_송예원 : 신문의 키워드를 잡아 그것을 중심으로 쓰면 뉴스 일기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글만 쓰기 보다는 그림이나 만화 등을 함께 넣어 작성하면 이해도 쉽고 보기도 좋습니다.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김하진 : 저는 최대한 다양한 형식으로 일기장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인드맵, 카드뉴스, 포스터 등 뉴스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모르는 분야의 기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은상_유예지 :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저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상_원영중 : 뉴스 일기를 작성하고 다시 읽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작성했던 일기를 보면 그 사이에 변화된 나의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상_김하진 :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고 팩트 체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마다 질문을 많이 만들면서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상_안예린 : 어렵고 처음보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단어를 찾아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동상_김정인 : 좋아하는 분야의 뉴스에만 눈길이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읽지 않는 분야의 글을 읽고자 시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집중력이 떨어져 힘들었습니다.
동상_조성경 : 기사에 숨겨진 내용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했습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은상_고다연 : 뉴스 일기를 쓰고 나서 매일 기사를 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동상_방유비 : 뉴스 일기를 위해 신문을 읽다보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고, 특정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의 생각을 적다보니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었

습니다.
동상_송예원 : 뉴스 일기장 작성 전에는 어휘력이 부족했었는데,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읽으면서 어휘력이 성장했습니다.
동상_원영중 : 뉴스와 친해졌다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반대 입장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찾아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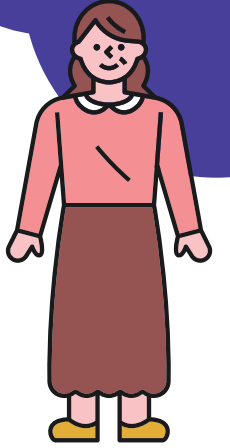
금상_김하진 : 뉴스와 친하지 않았어도 겁먹지 말고 한 번 도전해보세요. 분명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동상_방유비 : 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귀찮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상_조성경 : 뉴스 일기를 작성할 때 공모전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읽으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공모전의 의도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Q10.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은상_유예지 : 뉴스 일기를 통해 생각을 마음껏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제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동상_원영중 : 디지털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하기에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은 이러한 취지로 진행되기에 훌륭한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공모전에 대해 알았으면 합니다.
동상_조성경 :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꾸준히 뉴스일기를 작성하며 날카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수상자 인터뷰

개인 - 성인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이은지 : 미디어 리터러시 SNS에 일기 28,000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속에서 제 일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성인 부문 금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저의 일기장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은상_우명희 : 주부이면서 하는 일이 있어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제 모습이 떠올라 기쁩니다.

은상_이나래 : 상을 받기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기를 작성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Q2.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금상_이은지 : 긴 수험생활을 마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활동을 탐색하다가 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우명희 : 신문은 본 만큼 세상을 알게 해 주고 읽은 만큼 세상과 만나게 해 줍니다. 제가 좋으니 아이들에게도 권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른들은 안 하면서 우리만 힘들게 시킨다며 반항을 하더군요. 이런 불평을 듣지 않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이나래 : 우연히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대한 게시글을 본 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뉴스 보는 걸 즐겨 했던 터라, 저에게 딱 맞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 일기장이란 무엇인지 한 줄로 표현한다면?

금상_이은지 : '치유로 가는 길' 입니다. 실제로 저는 뉴스 일기를 쓰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지식을 쌓고, 감동도 받으며 그야말로 '힐링'을 했습니다.

은상_이나래 : '물' 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어쩌면 관심 갖지 않았던...사회 다방면에 대한 정보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상_윤연자 : '행복' 입니다. 왜냐하면 뉴스일기를 작성하는 일 덕분에 뉴스를 관심있게 보고 작성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4. 뉴스 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은상_이나래 :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가족과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일이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와 서로 설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동상_노애경 : 진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뉴스 일기 작성 활동을 진로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뉴스 기자가 되고 싶다면 진로를 찾게 된 학생을 보며 교사로서 상당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상_윤연자 : '타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신세대)과 여고 친한 친구들(구세대)의 의견을 들으면서 뉴스일기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Q5. [나만의TIP] 4회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은상_백승민 : 요즘은 언론사의 기사보다 더 괜찮은 미디어/언론/시사/콘텐츠 뉴스레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닉, 북저널리즘, 캐럿이 있고, 육디피(@6days.paper)처럼 종이신문 칼럼을 읽는 청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오늘, 닷페이스, 신문과방송 등의 미디어 비평 매체도 존재하는만큼 다양한 매체의 글을 찾아서 읽으면 생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은상_이나래 : 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의 뉴스 일기를 쓰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좋아하거나 잘 아는 분야의 뉴스거리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뉴스로 점차 뻗어 나가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동상_이인순 : 저는 일기를 쓰듯 매일 관심사를 오려 사설처럼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쓰기가 하나의 습관이 되고, 논술 쓰기의 토대가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상_윤연자 : 뉴스일기를 쓸 때 시 쓰기, 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루함을 줄이고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작성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은상_백승민 : 여러 신문을 종합해서 읽고 나만의 시각

을 도출해내는 일입니다. 단편적인 프레임이나 시각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 혹은 이슈를 다룬 여러 기사를 비교하다보면 그 미묘한 차이가 보이면서 뉴스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상_이나래 : '이해'입니다. 뉴스를 읽다 보면 잘 모르는 분야의 내용을 이해해야 내 의견을 낼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뉴스의 진실 여부도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동상_신해린 : 뉴스일기를 재미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는 복잡한 뉴스를 분석했다면 다른 날은 가볍게 일상 이야기를 녹이고, 때로는 스티커도 붙이면서 일기를 숙제처럼 느끼지 않도록 흥미를 유지했습니다.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상_이은지 : 일기장 작성을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이라 30장을 채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 한 편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한 편을 2~3일에 걸쳐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겼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동상_노애경 : 종이 일기장이 좋지만, 온라인 일기 작성 방법을 활용한다면 훨씬 뉴스 일기 작성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상_신해린 : 어떤 뉴스를 쓸지 정하는게 어려웠습니다. 가벼운 뉴스보다는 생각할 거리가 있는 기사나 뉴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양질의 뉴스를 찾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동상_노애경 : 뉴스 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냥 뉴스 기사를 읽고 넘어가는 소비성 뉴스 읽기였다면, 뉴스 일기를 작성하면서부터 뉴스 기사를 실제 나의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읽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동상_윤연자 : 뉴스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알게 되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졌습니다.

동상_이인순 : 신문을 하루라도 안보면 허전하고, 몇 가지의 신문을 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금상_이은지 : 뉴스일기장 작성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은상_백승민 : 도전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어제와 나았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오니까요.

동상_노애경 : 뉴스를 읽고 그 소감이나 생각을 일기로 기록한다는 것은 세상을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뉴스 일기를 작성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상_윤연자 :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심이 가는 뉴스를 고르는 일부터 서서히 시작하다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게 되고, 지적활동으로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시도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금상_이은지 : 뉴스 일기를 작성하던 3개월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뉴스일기장은 계속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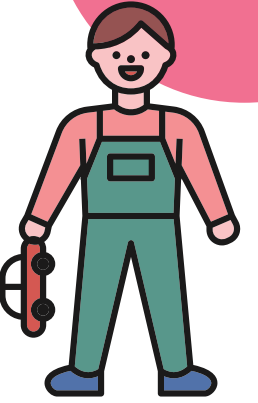
은상_이나래 : 뉴스일기를 작성하면서 제 하루는 항상 '뉴스읽기'로 시작해 '뉴스일기'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고, 저처럼 뉴스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_노애경 : 앞으로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때그때 쉽게 뉴스 일기를 작성할 수 있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상_윤연자 : 뉴스일기 작성으로 세상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제 생활에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니, 이 또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 일기를 쓰는 내내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행복했습니다.

수상자 인터뷰

단체 - 어린이 저학년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뉴스에너지 : 뉴스 기사 1편을 읽고 뉴스일기를 쓰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막상 완성된 뉴스일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을 타니까 그동안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정말 기쁩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뉴스 기사 1편을 읽고 뉴스일기를 쓰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막상 완성된 뉴스일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을 타니까 그동안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정말 기쁩니다.
동상_박시은 : 뉴스일기 공모전에 뽑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쁩니다.

Q2.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금상_뉴스에너지 :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어린이 신문을 주시며 읽어보라고 하시다가 뉴스일기장이 있는데 우리 반이 함께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시며 자연스럽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지역아동센터에 오신 독서지도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이 있는데 해보겠냐고 물어 보셔서 언니랑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박시은 : 지역아동센터 독서선생님의 권유로 동생들과 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한줄로 표현한다면?

금상_뉴스에너지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관심이다. 왜냐하면 덕분에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뉴스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안경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았던 뉴스에 새롭게 관심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상_박시은 :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통로이다.

Q4. 뉴스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금상_뉴스에너지 : 뉴스 기사 1편을 읽고 뉴스일기를 쓰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끔 2편의 뉴스일기를 쓰면 밤 10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쓰는거라 안쓸 수가 없어서 쓰긴 했지만 그날은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자야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뉴스를 보는데 김치 음료수와 같은 이상한 음식이 나왔던 것이 기억나는데 언니와 제가 이걸 어떻게 먹지 하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동상_박시은 :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어린이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Q5. [나만의TIP①]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금상_뉴스에너지 : 뉴스 기사 내용에 관련된 사진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출력하여 뉴스일기에 활용했고, 관련된 기사 내용을 검색하여 더 많은 정보를 뉴스일기에 쓰기도 했습니다. 사진, 검색, 책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함께 쓰면 훨씬 더 재밌게 뉴스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뉴스를 보고나서 뉴스의 내용과 비슷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글을 적으면 더 좋은 뉴스일기가 됩니다.
동상_박시은 : 사진 스크랩하기, 핵심 키워드 찾아서 표시하기, 중심문장 찾아보기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뉴스에너지 : 뉴스 기사 내용에 관련하여 나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정리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기사를 꼼꼼히 읽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그림 그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림 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것이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동상_박시은 : 뉴스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은 무엇일까? 나는 기사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상_뉴스에너지 : 뉴스기사 내용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찾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어휘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기사 내용을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뉴스를 보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머릿속에 있는데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동상_박시은 :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_뉴스에너지 : 뉴스일기장 작성 전에는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일기장 작성 후에는 뉴스에 관심이 생겼고 뉴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어린이 신문도 꼬박꼬박 읽으면서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는 재미도 느꼈습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뉴스 일기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뉴스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작성하고 나서는 평소에도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씩이라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동상_박시은 :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뉴스가 어렵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금상_뉴스에너지 : 공모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번씩은 꼭 뉴스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일기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하

므로 이벤트를 꾸준히 해주면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요?
은상_김유빈/김소은 : 뉴스에 관심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상_박시은 : 뉴스일기 참가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상품이 있기에 아이들이 더욱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뉴스에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10.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금상_뉴스에너지 :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뉴스일기를 써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뉴스를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은상_김유빈/김소은 :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화이팅!”
동상_박시은 : 저처럼 아이들이 뉴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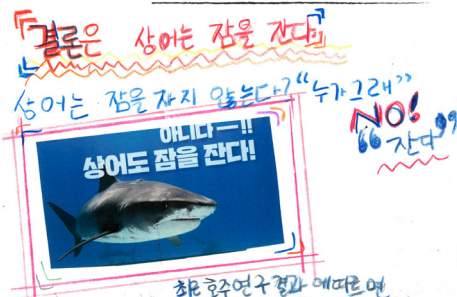
금상_뉴스에너지 : 우리반 10명의 학생이 힘을 모아 쓴 뉴스일기장은 우리들의 땀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입니다.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뉴스를 읽고 뉴스를 쓰면서 더욱 끈끈한 우정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은상_김유빈/김소은 : 뉴스일기를 언니랑 적으면서 언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해졌습니다. 상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상_박시은 : 뉴스를 보다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뉴스는 많지 않고, 사건과 사고등이 대부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 | 어린이 저학년 수상작

NO. 46 일기 제목: **눈감는 것과 상관없이**

일기작성일	2022년 4월 19일	연문사	손현우 10세
기사발행일	2022년 3월 19일	기자명	서원준
기사출처 (기사 제목)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 "누가 그래?"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해수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중에 대사가 떨어지는 대부분의
동물처럼 이빨상어가 잠을 자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일 때 산소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출처: bio9, naver.com, 2022. 3. 18)
상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상어는 잠을 잔다!



NO. 11 일기 제목: **지구온난화범인은 바로 인간입니다**

일기작성일	2022년 5월 16일	연문사	김지현 10세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12일	기자명	정준영
기사출처 (기사 제목)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책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우리 인간입니다!
1.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
2. 공장, 화력발전소 등
3. 각종 기계나 트럭, 배 등의 엔진 연소
4. 비행기에 탄 연료가
시각의원인온난화원인연소!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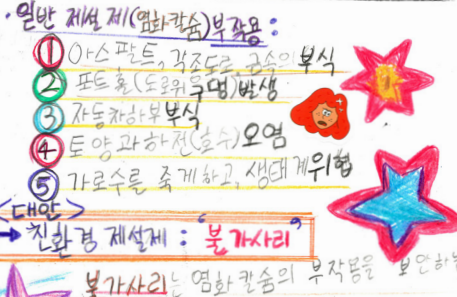


금상 뉴스에너지 (방하음)

NO. 19 일기 제목: **친환경 제설제 '불가사리'**

일기작성일	2022년 3월 23일	연문사	신민준 10세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26일	기자명	서원준
기사출처 (기사 제목)	친환경 제설제... 눈 녹는다고 마구 뿌리면 안돼!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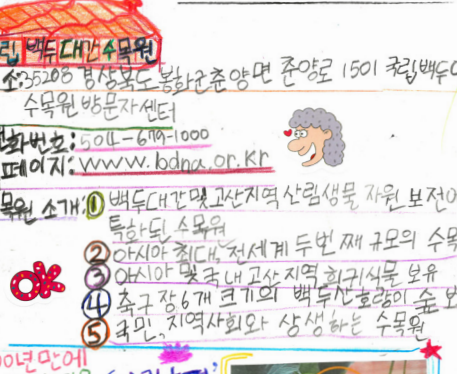
일반 제설제(염화칼슘) 부작용: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금속은 부식
2. 포도, 사과, 배 등은 산성
3. 자동차 배기구
4. 토양과 지하수 오염
5. 가로수를 죽이고 생애 위험
친환경 제설제: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염화칼슘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사실 불가사리는 산성으로 파괴하고 전복
소라를 죽이고 하천 수질을 악화시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불가사리가 제설제로 사용되어 바다
생태계는 좋아지고, 환경은 보호되는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제설제가 많이 나와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NO. 13 일기 제목: **국립백두대간 시드볼트 '아라호련'**

일기작성일	2022년 3월 18일	연문사	김지현 10세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12일	기자명	정준영
기사출처 (기사 제목)	국립백두대간 시드볼트... 생물종 다양성 보전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100년 만에
다시 꽃을 피운 '아라호련'
아라호련 꽃은 보라색으로
제법 고사리 같았다.
시드볼트가 있어 몇 년 후에도
계절마다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NO. 12 일기 제목: **심수하지 마!! ~은상**

일기작성일	2021년 7월 4일	연문사	한국경 12세
기사발행일	2021년 6월 30일	기자명	장시영
기사출처 (기사 제목)	'내동자네'가 '내동자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둬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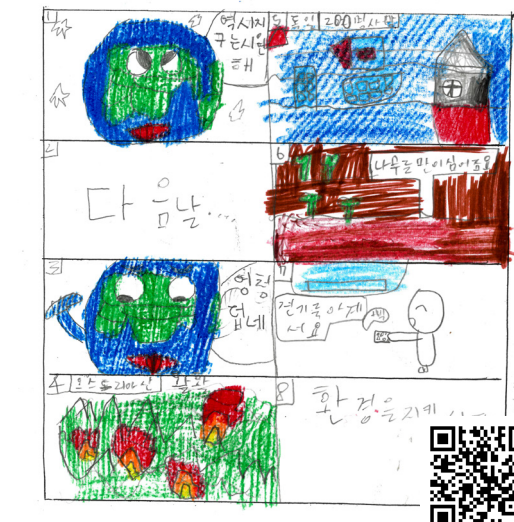


은상 해맑은자매 (김유빈)

NO. 일기 제목: **21기 가이코 시골**

일기작성일	2021년 7월 21일	연문사	한국경 12세
기사발행일	2021년 7월 18일	기자명	장시영
기사출처 (기사 제목)	세제개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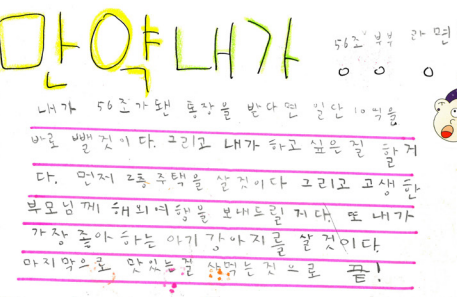


동상 곰팡리터러시 (박시은)

NO. 일기 제목: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연문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기사출처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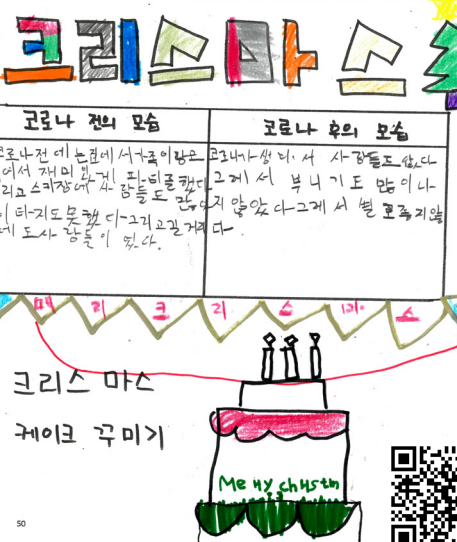
만약 내가 56조 원의 돈을 받았다면 일단 10억을
바로 빼앗아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
다. 먼저 2억을 빼앗아 살 거고 그리고 고생한
부모님께 5억을 보낼 거고 나머지 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기 강아지를 살 거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생애 보험으로 쓸 거다.



이름: 이연준 NO. 일기 제목: **집에서 파티 하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일기작성일	2021년 12월 8일	연문사	이연준 10세
기사발행일	2021년 12월 8일	기자명	장시영
기사출처 (기사 제목)	집에서 파티 하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굿미기

수상자 인터뷰

단체 - 어린이 고학년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 감사합니다. 상을 받게 돼서 뿌듯합니다.
- 정말 저희가 상을 받나요?
- 와우! 우리가 해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동상_김지우 : 처음으로 뉴스일기를 쓰면서 힘들었던 기억과 쓰면서 재미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고 믿겨지지 않아요.

금상_씩쓰리 :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정말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작성했는데 뽀핍 줄은 몰랐습니다. 부족한 저희 뉴스일기장을 뽑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동상_박정하 :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더 많이 쓰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엄마와 함께 뉴스일기를 쓰면서 엄마한테 알려주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뿌듯합니다.

Q2.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금상_씩쓰리 : 작년 선배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뉴스일기장을 보고 우리들도 한 번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상_김지우 : 우연히 뉴스일기라는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작성해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 한국어학급 선생님께서 함께 뉴스일기에 도전하자고 하셨습니다.
- 한국에서 신문은 처음 읽어 봤어요. 선생님께서 동화책이 아닌 신문을 읽고 글을 쓰자고 하셨습니다.
- 저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데, 잡지나 신문을 오리고 생각과 느낌을 쓰고 일기장을 꾸미는 일이 즐거웠어요.

동상_박정하 : 엄마가 먼저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한줄로 표현한다면?

금상_씩쓰리 : 나에게 뉴스일기는 (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흥미로운 취미이다. 왜냐하면 일기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꾸미는 게 신났기 때문이다.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한국어 교과서이다. 왜냐하면 뉴스를 읽다 모르는 낱말을 찾고 뜻을 썼기 때문이다.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러시아어를 쓰는 노트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어를 쓰는 일이 없는데, 뉴스일기를 쓸 때 러시아어로 쓰기 때문이다.

동상_박정하 : 뉴스일기는 나의 생각과 사고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다. 엄마에게 뉴스일기장은 딸과의 소통 창구이다.

동상_김지우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추억이다. 왜냐하면 뉴스일기장을 쓰면서 아버지와 많은 추억을 쌓았기 때문이다.

Q4. 뉴스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동상_김지우 : 저는 뉴스일기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쓰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고나면 아버지에게 스~옥 드리고 아버지 생각을 보고 싶었죠. 가끔 아버지가 제게 뉴스일기 썼냐고 물어보시는 날이면 꼭 그날은 제가 뉴스일기를 안썼더라구요. ㅋㅋㅋ

동상_박정하 :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공모전에 신청하고 의욕적으로 뉴스일기를 쓰시겠다고 하셨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많이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접근 해야할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쓰기 시작했고 엄마는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며 같이 썼습니다.

Q5. [나만의TIP①]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금상_씩쓰리 : 우리반 3명은 모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림을 포함하여 뉴스일기를 쓰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시, 노래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저는 생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글보다 그림으로 하는 게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동상_김지우 : 저는 종이 신문(어린이 신문)을 구독했어요. 매일 신문이 도착을 하니 꼭 한번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동상_박정하 : 먼저 기사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 기사를 읽고 어떠한 형식으로 써야 그 기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썼습니다.ex) 만화, 그림, 대화글, 등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같은 흥미로운 뉴스를 선택하면 일기를 더 즐겁게 쓸 수 있습니다.

금상_씩쓰리 : 기사를 읽고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기장에 적을 때는 나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동상_박정하 : 기사를 고르는게 힘들었습니다. 정치나 경제 부분은 기사를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 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일기를 쓰고 싶은데 한국어도 러시아어도 모르고, 낱말이 생각 안날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이제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리에 대한 뉴스일기를 쓰고 싶습니다.

동상_박정하 : 뉴스일기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냥 뉴스를 대충 봤는데 뉴스 일기를 쓰면서 뉴스를 좀더 꼼꼼하게 읽게 되고 엄마와 함께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금상_씩쓰리 : 바라는 점은 부록에 있는 스티커나 꾸밀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문과 관련한 꾸미기 스티커가 많아지면 일기를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상_김지우 :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10.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동상_김지우 :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보면 여러분의 글

쓰기 실력이 앞장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금상_씩쓰리 : 뉴스일기를 잘 작성하여 더욱 신선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뉴스일기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은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동상_박정하 :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참여해보세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글을 써보는데 도움 되고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Q11.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금상_씩쓰리 : 뉴스일기장을 더 다양한 색과 디자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일기장이 더 예쁘면 학생들의 참여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뉴스일기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뉴스를 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상_달빛 뉴스배움 한국어학급 :

- 모두 뉴스읽기 뉴스일기에 도전해보세요! 파이팅!
- 힘들 수도 있지만, 뿌듯한 경험입니다.
- 우리 일기는 누가 갖게 되나요?? 사람은 많은데, 1권 밖에 없어요~.

동상_김지우 : 그동안 뉴스일기를 쓰면서 힘든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경험이었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1등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동상_박정하 : (엄마) 막상 글을 쓰려니 막막하고 어떻게 접근해야될지 답답할때가 많았는데 옆에서 딸이 도와주고 상의하며 딸한테 많이 배우게 되었다. 뉴스 일기장은 엄마와 딸의 소통 창구이자, 지침서 같은 부모 역할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다. (딸) 뉴스일기를 쓰면서 다른 글을 쓸 때도 좀 더 창의적으로 쓰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단제 | 어린이 고학년 수상작

NO. 7 일기 제목: 코로나 19로 통한 학교 등교 모습

일기작성일	2021년 9월 8일	언론사	소년한국일보
기사발행일	2021년 8월 17일	기자명	서원주 기자
기사출처 (기사 제목)	"1주일 동안에 대비 훈련이진 생활 리듬 51% 회복"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도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등교는 할 수 없는 법 그래서 2학기 때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는 1, 2학년만 매일 등교하고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는 1, 2학년도 포함해 6분의 5까지 등교할 수 있다. 9월 6일 3단계는 전교생이 모두 다닐 수 있다고 하고 4단계어도 1, 2학년은 매일 다닐 수 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마스크 없는 등교를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스크도 없어야 하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지 않음. 너무 정당한 답이 있는 거 같아서 해보았다. <터>

나도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마스크도 없어야 하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지 않음. 너무 정당한 답이 있는 거 같아서 해보았다. <터>

NO. 76 일기 제목: 인간과 자연 그 사이

일기작성일	2021년 10월 4일	언론사	소년한국일보
기사발행일	2021년 9월 12일	기자명	서원주 기자
기사출처 (기사 제목)	"인간과 자연에서 팬데믹의 의미를 찾다"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코로나 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간 욕심에서 비롯된 인류의 재앙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이 기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술관의 수가 절반으로 줄고 그나마 전시하는 작품도 줄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인간을 이 부러지게 개발을 하면서 박제의 터전은 부수고, 그 박제를 위해 먹으면서 코로나-19가 생긴 것이다. 전시하는 작품이 줄면서 작가들의 생계도, 돈벌이가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작품 하나를 그려서 이번 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

NO. 56 일기 제목: 하루빨리 탄소중립! 탄소제로

일기작성일	2021년 10월 23일	언론사	소년한국일보
기사발행일	2021년 9월 24일	기자명	장준영 기자
기사출처 (기사 제목)	"대기업으로 매년 수백만명이 죽는다고 한다"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내가 매일 보는 뉴스에서 탄소중립! 탄소제로"라는 기사를 보았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를 같게 해서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NO. 63 일기 제목: 어른 마음 작은 새들 설을 시간 다들면 그

일기작성일	2021년 10월 26일	언론사	소년한국일보
기사발행일	2021년 10월 11일	기자명	서원주 기자
기사출처 (기사 제목)	"기타에도 겨울이 왔어요"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내가 저번에도 깃털에 관련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바로 "한국 깃털, 세계 자연유산 됐다"라는 기사였는데 그 때 여기 나와있는 이 깃털을 그려본 것 같다. 그때는 저 빨간색 꽃과 노란색 꽃이 원지 몰랐었는데 꽃이름이 칠면조와 함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다음에 겨울이 된다면 겨울 깃털에 가보고 싶다. 11월까지 칠면조 깃털을 칠면조 깃털로 그려볼까? 겨울이 되면 칠면조 깃털이 그려질까? 겨울이 되면 칠면조 깃털이 그려질까?

NO. 38 일기 제목: 나의 국민등록 번호를 어떻게 찾을까?

일기작성일	2021년 10월 18일	언론사	어린이신문
기사발행일	2021년 7월 1일	기자명	여강숙
기사출처 (기사 제목)	"국민등록 번호를 찾는 방법"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국민등록번호 찾기 방법

국민등록번호 찾기 방법

국민등록번호 찾기 방법

은상 달빛 뉴스배움 (이바네사)

NO. 28 일기 제목: 가족토론하기

일기작성일	2022년 10월 26일	언론사	어린이신문
기사발행일	2022년 10월 26일	기자명	가정어머니
기사출처 (기사 제목)	"가족토론하기"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나의 생각은??

아빠

엄마

동상 너와 나 우리 (박정하)

NO. 70 일기 제목: 사지

일기작성일	2021년 10월 19일	언론사	어린이신문
기사발행일	2021년 12월 1일	기자명	정유민
기사출처 (기사 제목)	"동물 가족은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니야"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동물 가족은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니야

동물 가족은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니야

동물 가족은 돈 주고 사는 물건이 아니야

NO. 일기 제목: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기사발행일	년 월 일	기자명	
기사출처 (기사 제목)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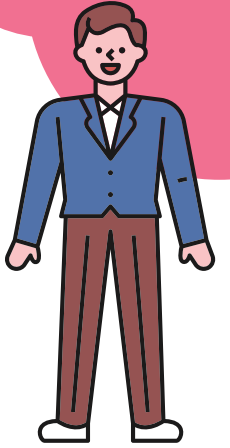
나

나

금상 뉴스썹쓰리 (박민슬)

수상자 인터뷰

단체 - 청소년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권수민, 이주영, 최지혜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경험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참여하게 되었는데 금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은상_김수민, 이현승

이현승 : 처음에는 정말 안 믿겼어요. 활동하며 얻은 게 많으니 참가에 의의를 두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은상_우령찬 원승이

강수현 :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뉴스를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깊었고 더군다나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뿌듯했습니다.

동상_호모너스

남하은 : 학교 학생들과 함께 국제 대회에 나가게 된 것만으로도 뜻 깊었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 상까지 받게 되어서 더욱 영광인 것 같습니다!

Q2.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은상_김수민, 이현승

이현승 : 우연히 학교 선생님을 통해 '뉴스읽기 뉴스일기'라는 공모전을 알게 되었어요. 손으로 끄적이는 걸 좋아하고 세상 일을 잘 모르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기도 해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Q3.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한줄로 표현한다면?

은상_우령찬 원승이

강수현 :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목록이다. 왜냐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사워하는 것처럼 뉴스일기를 작성할 때 하루의 마무리라는 생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동상_김주혜

강소은 : 저에게 뉴스일기장은 홍삼이다. 요즘 제가 홍삼을 먹고있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귀찮거든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매일 먹게 되고 또 효과도 엄청 좋아요,, 이 홍삼처럼 뉴스일기장도 처음엔 쓰기 귀찮지만 꾸준히 쓰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Q4. 뉴스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

동상_김주혜

강소은 : 같은 기사를 보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겨 조금 대화가 과열되었던 기억이 생각나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지식적인 측면의 논쟁이었기 때문에 꽤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동상_호모너스

강재영 : 기사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심혈을 기울여 멋진 사람을 그렸는데 어머님께서 보시고 "무슨 동물이야? 잘 그렸네!" 라고 하신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네요...

이조은 : 어떤 뉴스를 읽을지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겨우 뉴스를 골랐어요. 근데 글씨 저의 고양이가 잘못 누르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했지 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찾았다는.. 이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Q5. [나만의TIP①]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동상_김주혜

정지은:뉴스를 읽을때 3회독을 하는것이다. 처음에 이야기위주로 크게 한번 읽고,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서 match 다음 두번째읽고, 마지막으로 내 경험에 빚대어 전체적으로 세번 읽으면 더 이해하기 편리해질것 이다.

동상_헬로매쓰

<1step>뉴스내용 파악하기 : (예)저출산,고령화 증가 추세
<2step>브레인스토밍하며 질문을 만들어보기:
<3step>궁금한 내용 조사하기:국가 통계포털,공공데이터 포털,통계청,구글 트렌드 등으로 정확한 데이터값을 알아볼 수 있다.

<4step>내 생각 나타내기: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가상 인터뷰,토론 등으로 나타내어본다.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동상_김주혜

박주은 : 내 생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동상_호모너스

박수빈 : 저는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즐거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일들도 그렇듯 압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기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는 뉴스일기장을 작성할 때 틀에 박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개성 있게 표현하면서 뉴스일기장 작성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상_권수민, 이주영, 최지혜

이주영 : 평소에 잘 찾아보지 않았던 기사들을 찾고 판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그리고 기사를 읽고 나의 생각들을 적는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일기를 계속 작성하다보니 다양한 어휘로 글을 작성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동상_김주혜

지다인 : 뉴스를 찾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뉴스를 네이버에서만 찾았다면 이제는 빅카인즈, 뉴닉 등 다양한 뉴스를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동상_호모너스

박수빈 : 뉴스일기장을 작성한 후로 전 가족과의 대화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과거,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았고 부모님은 뉴스를 챙겨 읽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시사 관련 이야기를 할 때면 방에 들어가 혼자 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스를 읽은 후 저는 부모님과 더욱 폭 넓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상희 : 하나의 뉴스를 읽을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Q9.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싶은 말이 있나요?

은상_김수민, 이현승

김수민 : 일기장 책에 보면 중간쯤에 꾸미라고 제공된 스티커가 있어요. 저도 그 스티커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종류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동상_김주혜

정세희 : 저의 뉴스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활동이어서

뜻깊었어요! 근데 뉴스일기에 처음하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0.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싶은 말은?

은상_우령찬 원승이

김나경 : 꼭 일기 형식이 아니어도 되니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혼자 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친구,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_호모너스

전하윤 : 처음에는 귀찮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작성하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지식이 쌓이는 기분을 경험하여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글 읽는 것을 싫어하던 이과생이 매일 적어도 기사 하나는 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Q11.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은상_김수민, 이현승

김수민 : 같이 대회에 나간 친구 현승이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돌이켜 이 대회를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은상_우령찬 원승이

손지수 :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_김주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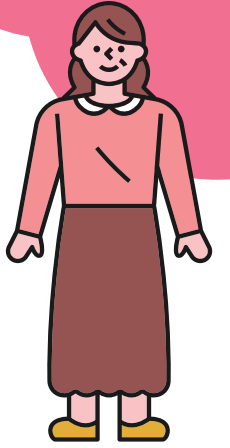
김주혜 : 뉴스일기 하면서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뉴스를 읽음으로써 좋은 습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다.

동상_호모너스

오경윤 : 가짜뉴스의 비율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가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기사를 선정하며 그 기사에서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관적인 표현이 있으면 이것은 그 기자의 의견이니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뉴스읽기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수상자 인터뷰

단체 - 생인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금상_사미연 : (신정임) 수상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학교도서관과 언론교육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는 사서선생님 및 강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사미연에서 애쓰 결과물이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 성취감을 느낍니다.

은상_주원연우네 가족 : 기쁘기도 하고 뜻밖이라 실감이 나지 않는다. 방학을 이용하여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두 딸 10살, 4살이 참여하여 뉴스일기를 작성해서 받은 상이라 더욱 감격스럽다.

동상_장두원 : (장두원) 3년간 꾸준히 뉴스일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뜻깊고 뿌듯합니다.

Q2.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은상_주원연우네 가족 : 큰 딸(10살)이 작년부터 뉴스일기를 열심히 쓰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가끔 신문도 같이 올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일기에 관심을 갖게되었고 방학을 이용하여 가족 뉴스일기를 써보자는 딸의 제안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상_장두원 : (정영현)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서 지금의 지도자분을 처음 만나 뉴스일기 활동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지도자분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나에게 뉴스일기장을 한줄로 표현한다면?

금상_사미연 : (최난영)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세상을 읽는 힘'이다. 뉴스를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상_장두원 : (이연수) 나에게 뉴스일기장은 '대화'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대화하는 매개체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Q4. 뉴스일기를 쓰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금상_사미연 : (김혜수) 뉴스일기 작성과정을 지켜보던 가족이 응원차 저의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린 후, 학생들의 뉴스일기 작품을 보더니 그림 실력이 부족했다며 그림을 전달해 주지 못한 채 방으로 다시 들고 들어간 웃픈 일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이었지만 저와 가족, 학교가 연결되어 소통했던 개인적으로 의미 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은상_주원연우네 가족 : 아직 4살인 둘째는 글을 쓸 수 없어 직접 쓰지는 못했지만 신문을 오리고 붙이는 것을 도와주면서 가끔 전에 붙였던 기사를 기억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듣고 말할 때는 우리 가족이 모두 놀라기도 하였다.

Q5. [나만의TIP①] 참여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뉴스읽기 비법을 소개해주세요.

금상_사미연 : (남미자) 빅카인즈에서 관심 분야 뉴스스크랩 기능을 활용하세요. 책과 연계해서 뉴스일기를 쓰면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동상_장두원 : (홍지원) 뉴스 일기가 매번 똑같으면 재미없지 않을까요? 저는 뉴스일기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날 기분 따라 팩트 체크 뉴스일기, 내가 쓴 기사 뉴스일기, 보도사진 뉴스일기 등으로 다양하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특집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Q6. [나만의TIP②]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금상_사미연 : (김광남) 사미연 팀원들과 함께 일기를 작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눈높이를 고민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쓰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 다채로운 방식으로 작성하는 안을 고려하였습니다.

동상_장두원 : (홍지원) 신선함입니다.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해 보도사진 분석, 기사 작성 등 작년에 작성하던 뉴스일기와는 다른, 특별하고 신선한 뉴스일기를 만들어보려 했습니다.

은상_주원연우네 가족 : 수많은 뉴스속에서 우리 가족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면 서로 둘러보면서 팩트체크도 하고 각자의 시각에서 그 뉴스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나 소감을 쓰도록 하였다.

Q7. 뉴스일기장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상_사미연 : (신정임) 다양한 형식으로 써 보기 미션이 어려웠어요.

(최난영) 뉴스 요약하고 느낌 쓰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 식상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기본 틀 만들기에도 도전했습니다. SWOT 이론, PMI 기법, 찬성 반대 디베이트, 육하원칙, 만다라 기법, 마인드맵 이론, 하부르타, KWL 이론 등 쓰기 방식들을 뉴스일기 쓰기에 적용해 보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동상_장두원 : (정영현)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예시도 참고하고 계속 쓰다보니까 저만의 방식이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Q8. 뉴스일기장 작성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은?

금상_사미연 : (박소형)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양해졌습니다. 뉴스일기장을 작성 한 후 읽었던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상_주원연우네 가족 : 작성 전에는 신문이 오면 자녀만 읽고 그냥 지나치기만 하였는데 가족이 함께 쓰는 뉴스일기를 하면서부터는 아빠도 엄마도 아침 혹은 저녁에 신문을 지나치기 못하고 읽어보려고 했으며 뉴스를 통해 딸과 얘기할 것이 점점 늘어났다는 점이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금상_사미연 : (김혜수) 시작하기 어렵거나, 시작 후에도 막연한 초보자를 위한 과정에서의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수상에서도 과정평가가 반영되고 그 변화를 보여준다면 이미 실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초보자나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이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은상_주원연우네 가족 : 가족 뉴스일기를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 이벤트도 진행해 주세요.

동상_장두원 : (홍지원) 뉴스일기 속 스티커 너무 귀엽습니다! 뉴스일기에도 많이 붙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서 노트북에도 붙여졌습니다. 다음 뉴스일기장에도 귀여운 스티커 많이 넣어주세요!

Q10.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금상_사미연 : (노재혁) 일기 쓰기는 꾸준함이 힘들지만 일기를 모으면 뿌듯합니다. 혼자가 힘들면 함께 해보세요. 제출은 따로 하더라도 함께하는 힘은 큼니다.

동상_장두원 : (홍지원) 취업 준비, 상식 공부, 논술 훈련 등을 위한 신문 읽기를 한 해 목표로 많이들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문으로 의미 있는 공부 하시는 김에 멋진 작업을 하나 남기고, 상 받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응원합니다.)

Q11.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세요.

금상_사미연 : (김혜수) 결혼식 준비같이 다시 하라만 하지 못하지만 끝나고 나니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더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접근 통로와 안내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_장두원 : (이연수)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었고,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단체 | 성인 수상작

NO. 12	일기 제목 :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일기작성일	2021년 7월 31일	연문사	정하민	
기사발행일	2021년 8월 1일	기사명	달콤한 초콜릿	
기사 출처 (기사 제목)	아이들 놀이 시간, 초콜릿을 먹었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 환경 / <u>문화</u>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안 읽은 것... 콘텐츠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림...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 어린이의 그림이 아이들 못지않게 슬퍼서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과거에 다르게 생각했던 것들,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네 가지에서 깨닫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원칙 거버넌스 스스로 시작한다면 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NO. 47	일기 제목: 내 마음 chinese red 사랑에 빠진 사랑의 물고기!			
일기작성일	2021년 7월 11일	연문사	Q미미	
기사발행일	2021년 7월 11일	기사명	수영장	
기사 출처 (기사 제목)	"모두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할 아이들"으로 "사랑"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무자비한 애도"...

다들 다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 정말 이해할 수 없어...

Q. 불행한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A. ...

Q. 불행한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A. ...

Q. 불행한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A. ...

NO. 17	일기 제목: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희생		
일기작성일	2021년 9월 23일	연문사	정하민
기사발행일	2021년 9월 24일	기사명	박하민 기자
기사 출처 (기사 제목)	반도체에 숨겨진 총알과 총명관라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기사 요약

반도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희생...

반도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희생...

알아보기

반도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희생...

반도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희생...

Think

반도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희생...

반도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의 희생...

NO. 65	일기제목: 지구의 기후 위키에서 탈출하자.		
일기작성일	2022년 1월 20일	연문사	정하민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21일(수)	기사명	지구 위키
기사 출처 (기사 제목)	기후 위키로 탈출하자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지구 위키로 탈출하자

지구 위키로 탈출하자

지구 위키로 탈출하자

나의 탈출 방법

나의 탈출 방법

나의 탈출 방법

지구 위키로 탈출하자

지구 위키로 탈출하자

지구 위키로 탈출하자

NO. 18	일기 제목: 목포의 숨겨진 역사		
일기작성일	2022년 1월 11일	연문사	정하민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11일	기사명	목포의 숨겨진 역사
기사 출처 (기사 제목)	목포의 숨겨진 역사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목포의 숨겨진 역사

목포의 숨겨진 역사

목포의 숨겨진 역사

Fact Check!

목포의 숨겨진 역사

목포의 숨겨진 역사

목포의 숨겨진 역사

목포의 숨겨진 역사

목포의 숨겨진 역사

은상 주원, 연우네 가족(정지훈)

NO. 1	일기 제목: 달콤한 초콜릿에 숨겨진 비밀		
일기작성일	2021년 7월 31일	연문사	정하민
기사발행일	2021년 8월 1일	기사명	달콤한 초콜릿
기사 출처 (기사 제목)	아이들 놀이 시간, 초콜릿을 먹었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NO. 1	일기 제목: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일기작성일	2022년 1월 3일	연문사	정하민 / 이혜진 3학년반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3일	기사명	달콤한 / 이혜진 기사
기사 출처 (기사 제목)	아이들 놀이 시간, 초콜릿을 먹었다.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 / 환경 / 문화 / 연예 스포츠 / 역사 / 기타 ()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NO. 3

일기 제목: 무녀전 공급망의

나비효과

일기작성일	2022년 1월 4일	연문사	더스쿠프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5일	기사명	
기사 출처 (기사 제목)	2022년 1월 '공급망 대란' 3개월 관측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달콤한 초콜릿의 숨겨진 비밀

금상 사.미.연

동상 이연수, 정영현, 장두원, 홍지원

수상자 인터뷰

우수지도자



Q1.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김상중 : 미디어리터러시를 활용한 환경교육에 흥미가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꾸준한 뉴스일기 쓰기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뉴스일기 공모전에 참가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지도자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시지 : 수상전화 받자마자 속으로 약호! 외쳤어요. 올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선희 : ‘우리 아이 문해력 어떻게 할까요?’ 최근 자주 듣는 이 뉴스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 해결책을 얻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한 제자들에게 성취감을 심어 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진석 : 열덜덜하다. 내가 뭐라고 이런 뜻깊고 큰 상을 받았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뉴스일기 작성 지도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뿌듯하다. 나 뿐 아니라 우리반 학생 몇 명이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었는데, 사실 내가 수상한 것 보다 제자들이 수상하게 되어 더 뿌듯하다. 제자로부터 어제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보람찼다.

Q2.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박우연 : 고려인4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학급 전담교사로서 뉴스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한국의 이모저모를 흥미롭게 알아가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양민경 : 독서 지도를 하며 친구들이 신문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려워해요. 알고 보면 재미 있는데 말이지요. 고민 끝에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고, 매일 신문을 읽고 활동에 참여할 어머님들과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Q3. 제4회 참여 지도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지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양민경 : 첫째, ‘매일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하다보면 조금씩 재미와 희열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일상대화를 넘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서로 성장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친구의 생각도 귀하다는 걸 알아요. 이 때 교사의 역할은 독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성한 뉴스일기장을 공유하며 서로 배우게 하세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친구들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다양한 방법과 반짝이는 생각을 더 빨리 배우고 성장합니다.

오현도 : 학생들은 뉴스를 읽고 글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어린이 신문)와 내용(환경 관련 뉴스)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이진석 : 만약 담임교사라면, 특정 희망 학생과 함께 작성하는 것 보다는 반 전체 모두와 함께 꾸준히 뉴스일기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Q4. 뉴스일기장 작성 지도를 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있나요?

김시지 : 질문만들기! 기사를 본 뒤 생각정리와 함께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보게 했어요. 다양한 질문을 통해 기사를 새롭게 보고, 창의적인 답도 만들어 내도록 했어요.

우명희 : 스스로 기사를 선택하고 생각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먼저 기사를 제공하고 대화를 시도할 때보다 시간이 걸리지만 스스로 읽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시도했습니다.

이혜영 : 독해력과 어휘력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Q5. 뉴스일기장 작성 지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오현도 : 학생들이 꾸준히 쓸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뉴스일기를 쓰려면 기사 선정에서부터 자료 분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활동으로 세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지훈 : 학생들이 꾸준히 일기를 작성하도록 동기를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작성하는 단체 뉴스일기의 특성상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일기를 작

성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뉴스일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Q6. 뉴스일기장 작성 지도를 하며 생긴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참가자가 있다면 전해주세요.

양민경 : 참여한 친구들 중 남매가 있었는데 매일 같은 기사를 정해 따로 뉴스일기장을 작성했어요. 두 남매의 일기장을 비교하며 읽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현도 : 뉴스일기를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뉴스 일기 한 개를 쓰는데 보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힘들만 합니다. 저한테 매일 뉴스일기 못쓰겠다고 하소연하던 그 친구가 뉴스일기 제출하고 2주 뒤에 찾아와서는 뉴스일기를 안쓰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며 올해 4회 공모전에 또 신청해달라고 합니다. 뉴스일기가 ‘중독’이라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지훈 : 코로나19 상황이라 뉴스일기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 포스트잇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어 보자고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의 댓글에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울러 뉴스일기를 쓰면서 생각한 점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지자체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학생이 있었습니다.

Q7. 뉴스일기장 작성 지도 전후, 달라진 점과 얻게 된 점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이혜영 : 아이들이 뉴스나 신문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뉴스와 친해졌다면 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지훈 : 뉴스일기장 작성전에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뉴스일기를 쓰면서 뉴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을 키우게 되었고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에 대한 사실 확인을 따져보는 역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Q8.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박우연 : 다문화학생들과 ‘뉴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앞으로도 쪽~ 계속되

어야 합니다. 매년 알차고, 풍성하게 진행될 공모전 소식을 아이들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Q9. 제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참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박우연 : “어서와! 뉴스읽기 뉴스일기는 처음이지?” 뉴스읽기와 뉴스일기에 대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짚어주는 뉴스일기장과 수상자들 저마다의 노하우가 한가득 담긴 우수사례집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이혜영 : 뉴스읽기 뉴스일기가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너희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파이팅!!

Q10.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마디해주세요!

김상중 : 뉴스일기 쓰기는 학창시절 평범한 자신의 모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뉴스일기 작성 1년 후에 보다 성숙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뉴스일기 공모전에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적극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뉴스일기 작성의 소중함과 기쁨을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오현도 :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득 내가 세상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발맞춰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교육을 한 것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명희 : 긴 시간 시도해야 하는 것 때문에 끝까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만큼 끝냈을 때 기쁨이 컸고 꾸준히 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 좋았습니다.

이선희 : 뉴스일기! 문해력 처방전이다. 뉴스 읽기! 삶의 영양제이다.

이혜영 : 언제나 너희들을 응원할게~

정지훈 : 한 편의 완성된 뉴스일기장이 나오기까지 흘렸던 땀방울과 신문을 오려 붙인 흔적은 아이들의 소중한 기록유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더 진화된 뉴스일기장으로 더 발전된 뉴스읽기, 뉴스일기를 이어나 가게 해주세요.

명확한 출처 확인과 허위정보 분별 가이드를 잘 적용했어요!

일기작성일	2022년 2월 18일	연onso	함께
기사발행일	2022년 2월 17일	기자명	곽노필
기사 출처 (기사 채취)	대치 날아올라 민간인 무장유형 새 맥스를 쓴다.		
주 제	사회/ 정치/ 교육/ 경제/ <u>과학·테크</u> / 환경/ 국제/ 문화/ 연예·스포츠/ 역사/ 기타()		

2020년 초하의 민간 유류유출을 개관한 연
의 유류유출 스페셜이슈가 이번엔 초하의 민
간 유류유출에 도전한다. 스페셜이슈는 현
재까지 11월 끝과 관련한 유류 유출해상도
불확실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방
개관한 마의 연방장자 제2도 이주조합은 기
자 강간화에서 '196년 미 항공우주국의 제
나 11호출의 기록을 이점표로 삼을것'이라고
다 다른 국제유류정가장 보다 3배나 더 높으
다.

부자. 즉 돈이 많은 사람
들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이념을 위
호하는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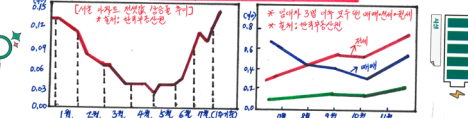
Interesting

- 인간이 우주를 관측하는 것
- 우주보다 3배나 높이 올라
가서 속표는 정.

원인 인간존재 유추를 할 수 있는 점이 놀랍다. 유추를 할 수 있는
유추에 유추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참 많았다. 내가 오늘날 사이에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 유추에 의해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유추할 것 같다. 철학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들 유추할 것 같다. 고대
이전, 나중의 것이 유추할 것 같다. 유추하든 돈은 어찌가하든. 고대

청소년 권예지

일기작성성일	2021년 8월 21일	연문사	세계 문화 / 매번 경제
기사발행월일	2021년 8월 21일	기자명	김현우 / 조영진 기자
기사출처 (기사 제목)	• 힐 임팩트 보편 5월 주권 금융... 주권 자금 자립에 무역투자 시금 갖춰 • 인텔 4nm 프로세서 마인드 컨트롤... 무역투자 투자 본연지		
주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국제 / 연애 / 스포츠 / 역사 / 기타		

[illegible][illegible]

성인 이우진

입학작성일	2021년 6월 28일	업종사	3차원도
기사발행일	2021년 6월 27일	기사명	최준영
기사출처 (기사 제목)	3차원도, 음성 15%에 3차원... 3차원도 3차원도 3차원도		
주제	사회/ 정치/ 교육/ 경제/ 과학/ 대외/ 환경/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역사/ 기타()		

0. ગ્રંથ : જાણીતા ભૂત જોડો નામોનો સંગ્રહ. સુરેશ
પ્રભાકર મેનગરોલો અગ્રીકુલે શ્રીકુલે સંગ્રહિત
છે.

○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22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총인구의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 2개, 제3국 등 '외국인'이
4.5%를 차지하는 데다,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 2개, 제3국 등
이민 2개에 달한다.

[illegible]

성인 이승록

원가작성일자	2021년 7월 4일	연onso	한국경제
기사발행일	2021년 7월 4일	기자명	김승민(sminnimg@hankyung.com)
기사 출처 (기사 제목)	‘도보’로 치솟았다? 남산리부 아파트도 /hankyung.com/site/article/202107032037		
주 제	사회/ 정치/ 교육/ 경제/ 과학/ 특/ 환경/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역사/ 기타 생활		

[illegible]

2. 분석: ① 코리올리 작용했다는 이유로 원인과 자극 기술. → 이 지점에서 원 인과인과 부인과인 구분.
→ 각 주체 서의 도에서 서로 불분명 오묘.
② 원인은 '갈라져 나 가도 남 자도 저 속'에 반대. → 사물자체를 어느 지점 과까지 드러내며 반대.
③ 어떤 사물을 얻기 위한것은: '어떤것'이라는 개념의 실현. 어떤 의의가. 어떤 의의가.
④ 그 후 부속에서 어떤 어떤 양으로 어떤 어떤 '어떤 것'의 어떤 것'을 얻다.

[illegible][illegible]

성인 정음진

일기작성일	2022년 1월 3일	연onso	하국경제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5일	기자명	홍남
기사출처 (기사주목)	3. 안보위장력강화... 적대시행대니 영...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 테러/환경/국제/문화/연예, 스포츠/역사/기타()		

(주요)

사랑 일체
편지나 부의금
을 줄게
정말 좋겠다

죽은이 아닌
가게 있어!!

(계좌)

장례식당에
! 피자를 시켰는데
편지와 부의금을 써서

함께 보냈다고
이 기사들 읽고
충분정음

(사비)

근데 죽은사람을
잘 차돌바라고
보내고 슬퍼하는것
~~내~~ 새 가족은
장례식당에서
피자를 판매 중인
상관하지 않아요

시작



**어린이 저학년 단체
우리는 빛나는 뉴스일기(윤예랑)**

일기작성일	년 월 일	언론사	나우뉴스
기사발행일	2024년 6월 10일	기자명	윤태희 기자
기사 출처 (기사 제목)			
주 제	사회 / 정치 / 교육 / 경제 / 과학·테크 / 환경 / 국제 / 문화 / 연애·스포츠 / 역사 / 기타()		

울거릴게 드문 파란색
창개리가 일찍 한 지역에서

날 건넜다. 9월 14일 토요일
본도에 머물던 지난 올겨울 양산
후쿠노카원 노가다사가미노노에
선 9세 여자여가 타완섬
창개리 마리를 날렸었다.
뒷산에서 나무를 베고 부친을
돌본 중 창개리 한 마리가 나무
뿌리 쪽에서 뛰어 나왔다

제모! 흙사냥상은 부엌 앞
뒤사! 파란색 창개리도 빨간

원래라면
자랄게 자다
벗어 나해서 한번
보고 싶다.

실제로 보면
국수를 깎길
지만 휘저
호기심에 생
긴다 쟁!

농사농의
뉘름으로 생나 개러
러니 신비러만 쓸레로
볼다면 관려되어있는
무척은 전
끝기도 한다.

아! 여기서

어린이 고학년 단체
다음, 진선, 은주, 선혜 (정다운)

발간작성일	2022년 2월 26일	연onso	여인이동아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18일	기자명	권세희
기사 출처 (기사 제목)	알뜰방로 쉼터, 그래서 보니 세련?		
주 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환경/국제/문화/연애·스포츠/역사/기타		

이바의견
이런나도 노력하여서 모든 일을
권한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맡기고
취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외에도 생산을 위한 일로서
결과로서 어떤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다다나서 이런 점으로
아래 보다 다음 두가지를 제하면
먼저, 계층 표현에 장 모를 사하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장 모가
있고 그것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장 모를 모으는 사람에게
가 많고 그 고 유적적인 것이다.
때문에 다음 방법을 먼저 시도하
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먼저 의결
같은 몇몇 제도를 먼저 시도하
고 있다. 업무를 일대 각 부는
다른 다른 여러 다른 다른 다른
생산 방법 제에 작고한 여러 가지
제도를 먼저 효과를 보아야 한다.
이제 다음 제도를 생각해 보면
다음 네 가지가 있는데 생산을
한 다음 각의 불가하다. 따라서

임가의견
신용을 일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윤을 두가지로 설명할
것이다. 첫째, 사장이 모든 일을
있고,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둘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셋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넷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다섯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여섯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일곱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여덟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아홉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열째, 다른 제도에 대한 일을

이바의견
이런것은 생산 부속으로
생성까지 취급할 수
만은 아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고학년 한유담

일기작성성일	2022년 3월 12일	연onso	국인일보
기사발행일	2022년 2월 9일	가자명	국민일보 기사
기사 출처 (기사 제목)	"과자 판매처 중 어디든 뭐 뭐 따냐구요?" [국경초]		
주 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테크/환경/국제/문화/연예스포츠/역사/기타()		

또한 ESG 경영이 필수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ESG 경영이 필수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ESG 경영이 필수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illegible]

47

인내력이 오래 갈수록, 회복능 생길가능성은 기쁨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임.

배양직접한 경험이야. 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할때 취업으로 인해 관계도 잘 보다 식욕 잃는 계통은 개선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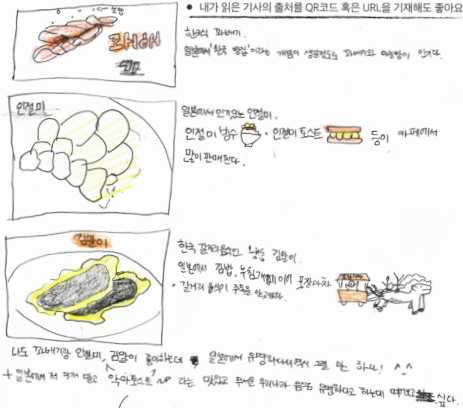
청소년 단체 최고 극락조(김은혜)

특별상 수상작 | 다양하상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읽었어요!

NO. 48 일기 제목: 맛있는 음식

일기작성일	2022년 2월 28일	연문사	박민영
기사발행일	2022년 2월 16일	기자명	김지영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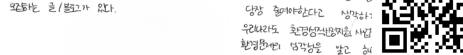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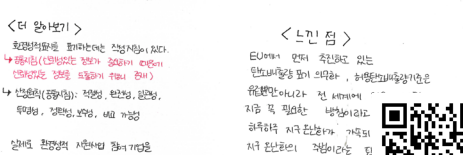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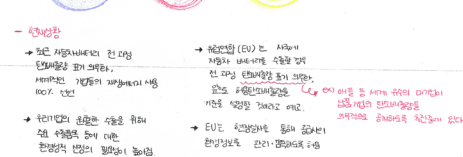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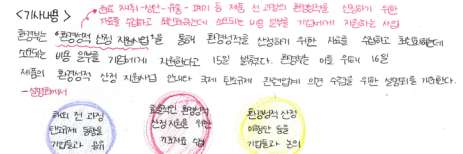


어린이 고학년 김세원

NO. 71 일기 제목: 학교생활이 다채롭다

일기작성일	2022년 2월 23일	연문사	한스
기사발행일	2022년 2월 15일	기자명	박민영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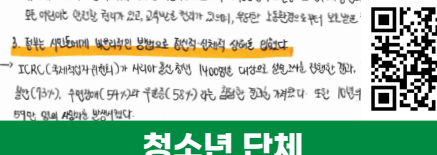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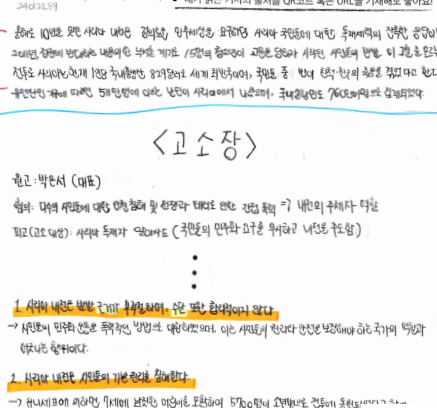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청소년 단체 예은, 애린 (박애린)

NO. 14 일기 제목: 21세기 지구촌에 찾아온 위기: 시리아 내전

일기작성일	2022년 3월 13일	연문사	권민영
기사발행일	2022년 3월 15일	기자명	김지영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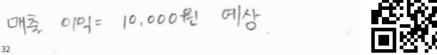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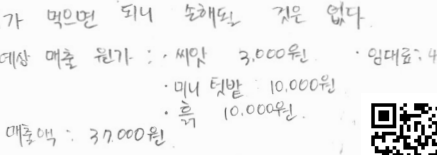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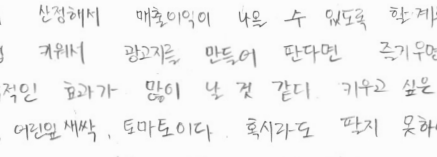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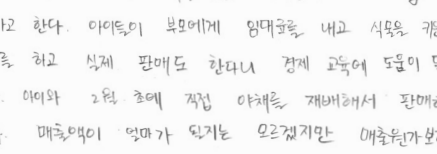


청소년 단체 세계 속을 살아가는 도서관 (정세연)

NO. 17 일기 제목: 이태원 동 좀 다녀볼까?

일기작성일	2022년 1월 16일	연문사	아린이 경제 신문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12일	기자명	박민영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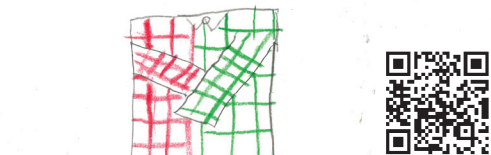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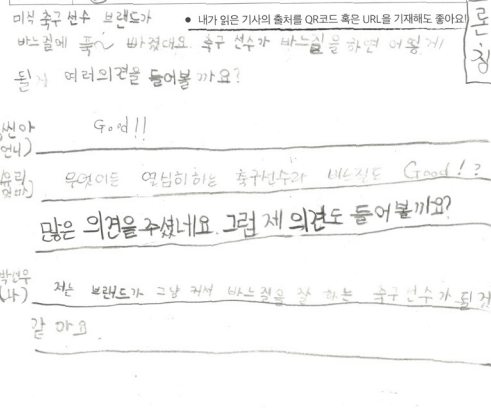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성인 김범은

NO. 107 일기 제목: 바느질에 빠진 10대 브랜드루칭

일기작성일	2022년 2월 21일	연문사	여러뉴스선일보
기사발행일	2022년 2월 21일	기자명	최지영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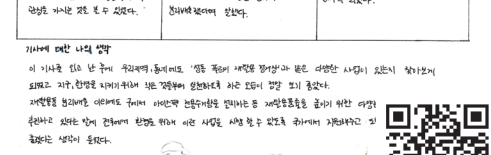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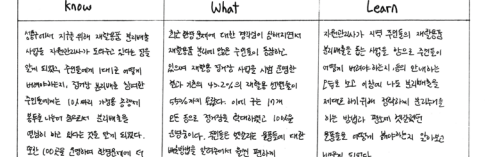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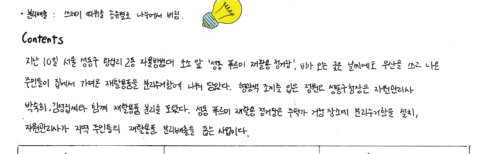


어린이 저학년 박신우

NO. 1 일기 제목:

일기작성일	2022년 6월 15일	연문사	세한
기사발행일	2022년 6월 15일	기자명	김지영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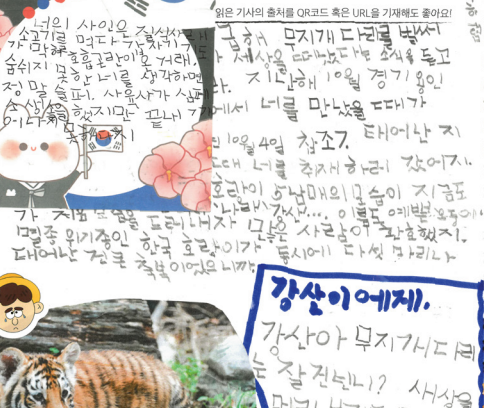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청소년 단체 4.7 (권도연)

NO. 28 일기 제목: 강산아 하늘 나라에서

일기작성일	2022년 1월 11일	연문사	소녀조선일보
기사발행일	2022년 1월 10일	기자명	이유진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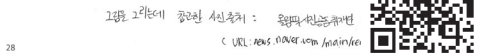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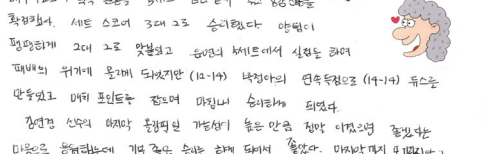


어린이 저학년 한예지

NO. 일기 제목: 여자배구 화이팅

일기작성일	2022년 8월 1일	연문사	조선일보
기사발행일	2022년 8월 31일	기자명	양지영
기사출처	영남신문사 '한국사 다채' 10대	주제	사회/정치/교육/경제/과학/문화/환경/문학/연예스포츠/역사/기타

● 내가 읽은 기사의 출처를 QR코드 혹은 URL을 기재해도 좋아요!



성인 홍민경

특별상 수상작 | 열정이빛나상

1년 동안의 노력이 빛나요!

특별상 수상작 | 다이어리꾸미기상

창의적이고 예쁘게 일기를 작성했어요!



어린이 저학년 김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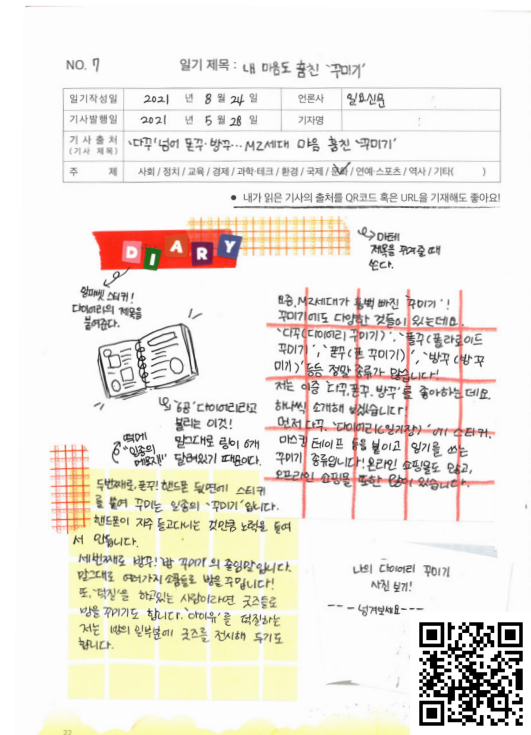
어린이 저학년 조은우



어린이 저학년 이나을



어린이 고학년 황세빈



어린이 고학년 석주아



청소년 조성주

공모전 본상·특별상 수상 명단

OLIVIER

分類別	金額	比率
取得費	減価償却	総取得費(円)

제인 | 머릿속에 저장된

[illegible]

제1회 | 어린이 고학년

수업명	교과목	소속
물리	물리학	영역실험학교
물리	물리학	대안두교초등학교
물리	물리학	영주초등학교
언어	국어	대성초등학교
물리	물리학	영광초등학교
물리	물리학	사학대중학교
언어	어휘	서울성문초등학교
물리	어휘	강원두교초등학교
물리	물리학	영주초등학교

[illegible][illegible]

개인 | **심연**

수상명	상위	소속
금상	여운희	이화여자대학교
은상	박승원	한국해양진흥은행(KOCCA)
동상	부정환	-
은상	이나연	-
동상	신동원	-
장상	정민준	-
동상	노태경	부산해상대학교 (해양교사)
장상	이현승	-
장상	김태환	-

단체 | **어린이 지학선**

수상명	상위	소속
금상	명환영	대전초등학교
은상	김유원	배양초등학교 통영지
동상	백서원	제천초등학교 통영지

단체 | **어린이 고학선**

수상명	상위	소속
금상	백민승	대전초등학교
은상	LI YUNHONGA	삼척초등학교
동상	김지우	소곡초등학교
장상	백정환	한국해양대학교해양수산과학대학 NCS전북대학교 연구소

단체 | **청소년**

수상명	상위	소속
금상	김지현	부산해상대학교
은상	김수현	부산해상대학교
은상	김나경	부산해상대학교
동상	이희원	부산해상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동상	지수원	대전 삼천초등학교
장상	김우현	장신대학교

단체 | **심연**

수상명	상위	소속
금상	서희연	-
은상	정지훈	-
장상	정두원	서해상 해양교역자 NCS해양수산특지원

개인 | **우수지도자**

상위	소속
최상위	한국해양진흥은행
금상지	해양조사원(해상조사) / 해양조사원(해상조사) / 해양조사원(해상조사) / 우수지도자(해상조사)
박두현	동해초등학교
정민준	이경초등학교 통영지
우정환	-
최상위	한국해양대학교해양수산과학대학 NCS전북대학교 연구소
최희석	부산 대학교 통영지
최희영	전남대학교 통영지
정지훈	대전초등학교

특별상 | **다이어리 꾸미기상**

분류부서	구분	상위	소속
개인	어린이 지학선	이나연	-
개인	어린이 지학선	최다원	전남대학교 통영지
개인	어린이 지학선	김지현	부산대학교 통영지
개인	어린이 지학선	최희영	부산대학교
개인	어린이 지학선	김수현	부산대학교 통영지
개인	어린이 지학선	박두현	부산대학교 통영지
개인	어린이 지학선	정민준	대전초등학교
개인	어린이 지학선	정지훈	대전초등학교
개인	어린이 지학선	박두현	-
개인	청소년	최상위	한국해양

특별상 | **명필가상**

분류부서	구분	상위	소속
개인	어린이 지학선	김지현	부산대학교 통영지
개인	어린이 지학선	최상위	부산대학교 통영지
개인	어린이 지학선	김수현	부산대학교 통영지
개인	청소년	최상위	한국해양진흥은행(KOCCA)
개인	청소년	김지현	부산대학교 통영지
개인	성인	최상위	-
개인	성인	최상위	-
개인	성인	최상위	-
개인	성인	최상위	-
개인	성인	최상위	-

특별상 | 월등이빛나상

영양부문	구분	상위	소속
개인	유소년 대학생	정윤우	-
개인	유소년 대학생	최승민	-
개인	유소년 대학생	김태남	-
개인	유소년 대학생	김태희	-
개인	유소년 대학생	이종환	-
개인	어린이 고학년	김정민	-
개인	어린이 고학년	김민수	대전충남대학교
개인	어린이 고학년	김태현	-
개인	어린이 고학년	최현민	-
개인	어린이 고학년	이소영	-

특별상 | 신뢰하상

영양부문	구분	상위	소속
개인	유소년 대학생	김민	-
개인	유소년 대학생	서지은	부산대학교
개인	유소년 고학년	김다은	영국조남대학교
개인	청소년	이서현	영남대학교
단체	청소년	최승민	충청대학교육원
단체	청소년	김민정	충청대학교육원
개인	청소년	최종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	청소년	전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	성인	최정민	-
단체	성인	박승민	-

특별상 | 다영하상

영양부문	구분	상위	소속
개인	유소년 대학생	정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	유소년 고학년	김태현	-
단체	유소년 고학년	김태현	우경대학교육원
단체	청소년	최정민	영남대학교
개인	청소년	김다은	부산대학교육원
단체	청소년	최정민	신서대학교
단체	청소년	최정민	신서대학교
단체	성인	최정민	-
단체	성인	최정민	-
개인	성인	최정민	-

특별상 | 꾸준하상

영양부문	구분	상위	소속
개인	유소년 대학생	최정민	-
개인	유소년 대학생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	유소년 대학생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	유소년 대학생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체	청소년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	성인	최정민	-
개인	성인	최정민	-
개인	성인	최정민	-
개인	성인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인	성인	최정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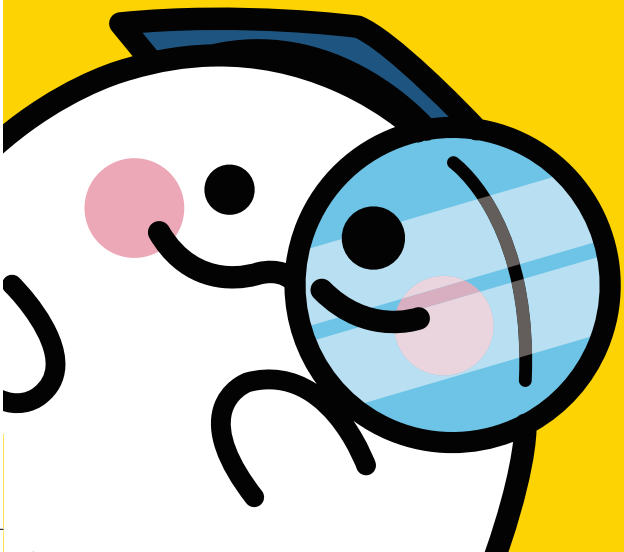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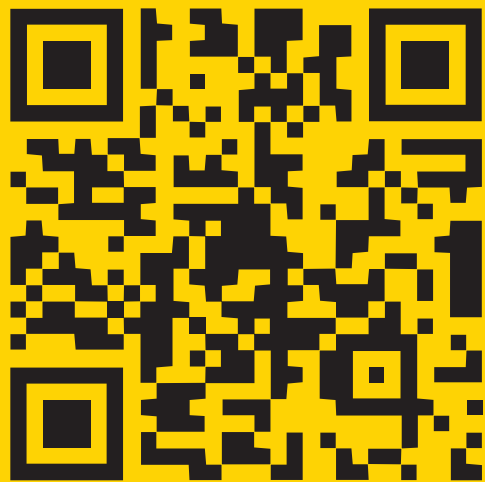
특별상 | 토요하상

영양부문	구분	상위	소속
개인	어린이 고학년	최정민	대전충남대학교
단체	어린이 고학년	최정민	우경대학교육원
개인	어린이 고학년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체	어린이 고학년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체	청소년	구경대학교육원	구경대학교육원
단체	청소년	최정민	충청대학교육원
단체	청소년	최정민	충청대학교육원
개인	청소년	최정민	-
개인	청소년	최정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체	성인	최정민	-



온라인전시관 QR코드

더 많은 뉴스읽기 뉴스일기
수상작이 보고 싶다면?



제 4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이 궁금하다면?

